

KLSI

ISSUE PAPER

www.klsi.org

82년생 여성의 노동시장 실태분석

정경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목차]

- I. 들어가며
- II. 82년생 여성의 노동시장 실태분석
 - 1. 경제활동 상태
 - 2. 취업자 현황 및 임금노동자 비율
 - 3. 고용형태
 - 4. 월평균임금, 저임금 노동자 비율
 - 5. 노동시간
 - 6. 근속년수
 - 7. 직업
- III. 요약 및 함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50(충정로3가, 골든브릿지빌딩) 3층
전화 02) 393-1457

팩스 02) 393-4449

WWW.facebook.com/klsiedit

<요약>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에 가장 많이 판매된 소설이 '82년생 김지영'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이전 세대에 비해 교육차별이 거의 사라진 세대를 대표하는 82년생 여성들의 노동시장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2016년 하반기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82년생 여성은 41만5천명, 남성은 44만1천명이고,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82년생 여성은 24만8천명, 남성은 41만3천명이다. 즉, 82년생 여성은 남성보다 2만6천명 적게 태어났으나 경제활동인구는 남성보다 16만5천명 적다.

둘째, 비경제활동인구는 82년생 여성이 16만7천명으로 동년배 남성보다 13만8천명 많다. 또한, 58년생 여성(16만6천명)과 남성(5만1천명), 70년생 여성(12만5천명)과 남성(2만3천명)보다 많다. 이 결과는 82년생 여성이 자발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었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다만, 설문에 응한 82년생 여성 중에서 직업을 구하지 않는 이유 1위는 육아이다. 그 결과, 82년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9.8%, 고용률은 57.9%로 58년생 여성을 제외하고 동년배 남성, 70년생 여성과 남성, 58년생 남성에 비해 가장 낮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82년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1.0%, 고용률이 49.7%로 나타나 육아로부터 벗어난 나이로 추정되는 70년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69.1%, 고용률 67.9%보다 낮다.

셋째, 취업자의 성별 비중을 볼 때, 82년생 취업자 10명 중에서 여성은 4명에 채 미치지 못하고 남성은 6명을 넘는다. 구체적으로, 82년생 여성 41만5천명 중에서 취업자는 24만명, 남성은 44만1천명 중에서 39만9천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5만9천명 적다. 특히, 82년생 대졸이상 여성이 11만4천명으로, 동일 학력의 남성(19만1천명)보다 7만7천명 적다. 82년생은 4년제 대졸이상 고학력자가 다수인만큼 대졸이상 성별 취업자수 격차가 7만2천명인 70년생이나 5만명인 58년생보다 격차가 더 크다.

넷째, 취업자 중에서 임금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82년생 여성이 86.3%로 가장 높다. 즉, 82년생 여성 취업자는 24만명인데 비해 임금노동자는 20만8천명이다. 이어 82년생 남성 취업자 39만9천명 중에서 임금노동자가 33만9천명으로 85.1%이며, 70년생 여성이 22만1천명(73.8%), 70년생 남성이 30만1천명(72.4%), 58년생 여성이 14만명(64.6%), 58년생 남성이 18만6천명(59.3%)이다.

다섯째, 82년생 정규직 10명 중에서 여성이 3명이고, 남성은 7명이다. 비정규직은 여성과 남성이 거의 절반씩 차지하고 있다. 즉, 82년생 정규직 41만명 중에서 여성은 14만명(34.1%), 남성은 27만명(65.9%)으로 31.8%p 차이이다. 82년생 비정규직 13만6천명 중에서 여성은 6만8천명(49.6%), 남성은 6만9천명(50.4%)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0.8%p 낮다. 나이가 들수록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지만, 여성의 정규직 비율 감소 추이가 급격하다. 82년생 여성 중에서 정규직 비율이 67.4%(14만명)이지만 70년생 여성은 50.2%(11만1천명), 58년생 여성은 30.9%(4만3천명)이다. 반면, 82년생 남성의 정규직 비율이 79.8%(27만명), 70년생 남성의 경우 74.2%(22만3천명), 58년생 남성 60.0%(11만1천명)이다. 한편, 학력별로 볼 때, 세 연령층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85.7%인 82년생 중졸이하 여성으로 사실상 10명 중 9명이다. '고학력자 시대'에 저학력자일수록 사회적 취약계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82년생 여성 노동자는 동년배 남성보다 근속년수는 0.1년 길지만 노동시간이 1주일에 5.6시간 짧고 한 달 임금은 67만원 더 적다. 82년생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219만원, 같은 나이 남성의 임금은 286만원으로, 남성 임금을 100만원이라 할 때, 여성 임금은 76만6천원이다. 82년생 여성의 임금은 70년생 여성의 임금(188만원)보다 31만원 높고, 58년생 여성(144만원)보다 75만원 높다. 여성의 임금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낮아지는 반면, 남성의 임금은 70년생이 가장 높고 82년생이 가장 낮다. 동일한 고용형태라 하더라도 성별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다. 82년생 정규직 여성은 249만원인 반면, 남성은 303만원이어서 여성이 54만원 더 적다. 82년생 비정규직 여성은 158만원인데 비해 남성은 220만원으로 여성이 62만원 더 적다. 또한 동일한 학력이라 하더라도 성별 임금격차가 뚜렷하다. 82년생 대졸이상 여성은 258만원으로 남성(323만원)보다 65만원 낮고 전문대졸 여성은 200만원으로 남성(267만원)보다 67만원 낮다. 82년생 중에서 성별 학력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집단은 고졸로 여성(161만원)이 남성(241만원)보다 80만원 낮다. 중졸이하의 여성의 경우 141만원으로 남성(166만원)보다 25만원 더 적다.

일곱째, 82년생 여성노동자 5명 중 1명은 저임금이다. 2016년 하반기 중위임금은 200만원이며, 저임금 기준은 중위임금의 2/3인 133만원 미만이다. 82년생 여성 노동자 20만8천명 중에서 4만1천명(19.5%)이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82년생 남성은 33만9천명 중에서 1만5천명(4.5%)이다. 70년생 여성 노동자 22만1천명 중에서 7만4천명(33.7%)이 저임금이며 남성은 30만1천명 중에서 1만3천명(4.2%)이다. 58년생 여성 노동자 14만명 중에서 7만8천명(56.1%)이 저임금이며, 남성 18만6천명 중에서는 1만8천명(9.7%)이 해당된다.

여덟째, 70년생이나 58년생과 달리 82년생의 경우 여성과 남성 모두 다수가 선택한 직업 1위는 경영관련 사무원으로 동일하다. 82년생 여성이 선택한 10대 직업 중에서 비정규직이 다수인 직업 1위는 문리/기술 예능 강사(91.2%, 1만명), 2위는 매장판매종사자(60.7%, 6천명)이다. 58년생보다 70년생이, 70년생보다 82년생 여성의 10대 직업에 이전 세대보다 고임금 직업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82년생 여성의 경우 금융 및 보험관련 사무종사자가 318만원으로 가장 고임금이며, 월 200만원 이상 버는 직업은 경영관련사무원(259만원), 회계 및 경리사무원(205만원), 행정사무원(241만원), 학교교사(265만원)가 있다. 동일한 직업이라 하더라도 남성의 임금이 더 높은데, 경영관련사무원의 경우 여성(259만원)이 남성(309만원)보다 50만원 적다. 금융 및 보험관련 사무종사자의 경우에도 여성(318만원)이 남성(364만원)보다 46만원 낮다.

마지막으로, 82년생 여성의 미래는 무엇인가. 12년 뒤 육아로부터 벗어나 노동의 세계로 귀환하면, 82년생 여성의 미래는 2016년을 살아낸 70년생 여성처럼 매장판매직이 직업 1위가 될 것인가. 24년 뒤는 오늘 날 청소원이 직업 1위인 58년생 여성의 기시감이 들 것인가. 82년생 여성은 떠돌이인 70년생이나 58년생에 비해 4년제 대졸이상의 고학력자가 다수이나 여전히 10명 중 4명은 비경제활동인구이다. 일하는 여성도 남성보다 임금이 낮고 비정규직 비율은 더 높다. 이는 12년 전 70년생 여성과 24년 전 58년생 여성의 삶과 대동소이할지도 모른다. 앞으로도 30대 기혼자들은 82년생들처럼 여성에게 육아와 가사노동 또는 비정규직 노동, 남성에게 장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역대 정부는 고용정책 1순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혹시 양질의 일자리란 남성이 장시간 일하고 여성은 전업주부이거나 육아와 일 모두 해내는 슈퍼맘을 전제로 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양성평등적이고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일자리이길 기대한다.

82년생 여성의 노동시장 실태분석

정경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I. 들어가며

이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에 가장 많이 판매된 소설이 ‘82년생 김지영’이라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이 책은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평범한 82년생 여성이 가족, 친지, 사회로부터 겪는 성차별을 정면으로 그려낸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82년생 김지영’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하며 더욱 유명해지기도 하였다.

82년생이 지금까지 관통해온 삶은 어떠한가. 82년 ‘개띠’가 태어난 해에 전두환 정권이 야간통행 금지를 해제하고 프로야구단이 지역별로 창단되었다. 6월 민주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이 폭발적으로 전개된 1987년에 이들은 아직 미취학 아동이었으며 중학교 3학년 때 IMF 외환위기를 경험하였다. 이들은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 민주 정부를 경험하였으나, 취업했을 때 직장은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을 당연시하였다. 82년생은 성별에 따른 교육차별이 거의 사라졌으나 가정과 직장에서 문화적으로 차별당하는 세대를 대표하는 나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82년생 이전에 특정한 출생년도가 한 세대를 대표하는 나이가 된 사례는 ‘58년 개띠’가 있다. 58년생은 한 해에 무려 92만명이 태어나며 ‘베이비붐 세대’를 상징하는 나이가 되었다. 이들이 만 21세가 되었을 때 유신정권이 몰락하였다. 사무금융권에 취직한 이들은 87년 6월 항쟁 때 ‘넥타이 부대’가 되었으며, 같은 해 7-9월 노동자 대투쟁부터 1996-97년 노동법 총과업까지 노동운동의 폭발적 성장을 직접 경험한 이들이다. IMF 외환위기 때, 만39세이던 이들 중에서 상당수는 공장과 사무실에서 해고되어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가 되었다. 이들은 이른 바 ‘뽕뽕이’로 고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58년생 여성의 다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남성 형제의 학비나 가족의 생계비를 대기 위해 공장으로 가는 게 당연시되던 성차별 세대이다.

한편, 70년생 개띠가 태어나던 해에는 와우아파트가 무너지고, ‘5적 필화사건’으로 사상계가 폐간되었으며,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하였다. 이들이 초등학생이던 197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는 ‘보릿고개’를 극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년 장기 독재가 조종을 울렸을 때, 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TV를 통해 87년 6월 민주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을 간접 경험하였다. 적어도 남성들은 취직걱정 없던 시대의 막내들이다. 이들은 58년생보다 성별에 따른 교육차별이 완화되었으나 82년생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긴 세대’이다.

이 보고서는 삶의 궤적이 서로 다른 82년생, 70년생, 58년생이라는 띠동갑 간의 고용지표를 분석하고자 하며, 주인공은 최초의 관심대상인 82년생 여성이다. 분석 내용은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

자 실태에 이어 임금노동자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노동조건 현황이다. 구체적으로, 임금노동자들의 고용형태, 학력에 이어 월평균임금, 주당 노동시간, 근속년수, 저임금 비율, 직업 현황을 분석한다.

띠동갑인 82년생, 70년생, 58년생의 노동시장 실태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통계청의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B유형)로, 제6차 표준직업분류상 소분류 기준의 직업 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2016년 하반기 현재, 만 나이 58세를 58년생으로, 46세를 70년생으로, 34세를 82년생으로 가정하였다.

II. 82년생 여성의 노동시장 실태분석

1. 경제활동 상태

1) 82년생 경제활동참가 여성 24만8천명, 동년배 남성보다 16만5천명 적어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2016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결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82년생 여성은 41만5천명, 남성은 44만1천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만6천명 적다. 82년생 여성은 70년생 여성보다 1만5천명 적고, 58년생 여성보다 2만9천명 많다. 70년생 여성은 43만명, 남성은 44만4천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만4천명 적다. 한 해에 92만명이나 태어났다는 58년 개띠 중에서 2016년 하반기 기준의 생산가능인구는 76만1천명이며, 여성이 38만6천명, 남성은 37만5천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만1천명 많다.

이중에서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는 82년생 여성의 경우 24만8천명, 남성은 41만3천명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16만5천명 적다. 82년생 여성은 70년생 여성보다 5만7천명 적고, 58년생 여성보다 2만8천명 많다. 70년생 여성은 30만5천명, 남성은 42만1천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1만6천명 적다. 58년생 여성은 22만명, 남성은 32만3천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0만3천명 적다.

한편, 82년생 여성 중에서 미혼은 10만명이며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8만6천명이다([부표 2] 참조).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30만7천명이고 경제활동인구는 15만7천명이다.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은 8천명이며 경제활동인구는 6천명에 이른다. 배우자가 있는 70년생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24만3천명으로 82년생보다 8만6천명 많다.

2) 82년생 여성 10명 중 6명 경제활동 참가,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70년생, 58년생보다 커

2016년 하반기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00)은 82년생 여성이 59.8%로 58년생 여성(57.1%)을 제외하고 가장 낮다. 또한 15세이상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52.6%)보다 높지만 전체 경제활동참가율(63.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2년생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93.4%로 나타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33.6%p(=93.4-59.8)이다. 70년생 여성의 경우 71.0%인 반면 남성은 94.9%로 성별 격차는 23.9%p이며, 58년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7.1%로 남성(86.3%)과의 격차가 29.2%p이다.

82년생 미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84.8%인 반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1.0%로 나타났다([부표 2] 참조). 반면, 배우자가 있는 70년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9.1%로 82년생 여성보다 18.1%p 높다는 점에서 육아기에 있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제약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3) 82년생 남성은 10명 중 9명 취업하는 동안 여성은 10명 중 6명도 안 돼

2016년 하반기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을 분석한 결과, 82년생 여성은 57.9%로 동년배 남성(90.3%)과의 격차가 32.4%p(=90.3-57.9)이다. 82년생 여성의 고용률은 58년생 여성(56.0%)보다 높고 70년생 여성(69.6%)보다 낮으며, 58년생 및 70년생, 82년생 남성보다 낮다. 70년생 여성은 69.6%로 같은 나이 남성(93.6%)과 24.0%p 격차를 보이고 있다. 58년생 여성의 경우 56.0%로 같은 나이 남성(83.6%)보다 27.6%p 낮다.

[표 1] 인적 속성별 주요 고용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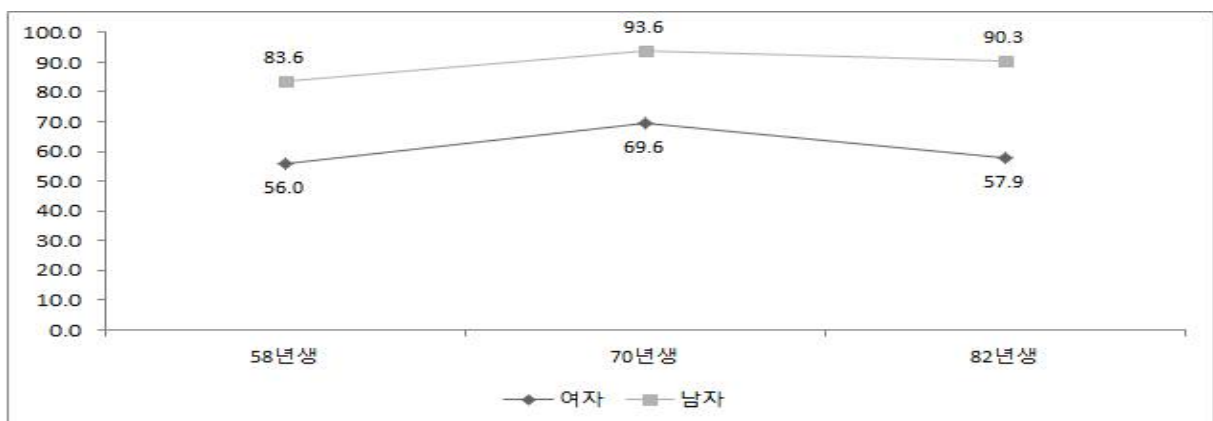
(단위 : 천명, %)

		전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15세이상		43,512	26,577	923	16,013	63.2	61.1	3.4
여성	전체	22,180	11,283	389	10,508	52.6	50.9	3.3
	58년생	386	216	4	166	57.1	56.0	1.8
	70년생	430	299	6	125	71.0	69.6	2.0
	82년생	415	240	8	167	59.8	57.9	3.2
남성	전체	21,332	15,294	533	5,505	74.2	71.7	3.4
	58년생	375	313	10	51	86.3	83.6	3.2
	70년생	444	415	6	23	94.9	93.6	1.4
	82년생	441	399	14	29	93.4	90.3	3.4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B).

[그림 1] 성별 연령별 고용률

(단위 : %)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B).

이어 학력별 고용률을 살펴보자([부표 1] 참조). 58년생 대졸을 제외하고, 82년생 전문대졸 여성이 동년배 같은 학력의 남성보다 고용률 격차가 36.3%p로 성별 학력별 고용률 격차가 가장 큰 집단이다. 다시 말해, 전문대졸의 성별 고용률 격차가 대졸(30.7%p), 고졸(33.9%p), 재학휴학생(16.1%p), 중졸이하(16.0%p)보다 더 크다. 구체적으로, 82년생 여성의 학력별 고용률은 대졸이상(62.6%)이 가장 높고, 재학휴학생(58.9%), 중졸이하(58.4%), 전문대졸(54.9%), 고졸(53.0%) 순으로 나타났다. 82년생 남성의 경우 대졸이상의 고용률(93.3%)이 가장 높고, 전문대졸(91.2%), 고졸(86.9%), 재학휴학(75.0%), 중졸이하(74.4%)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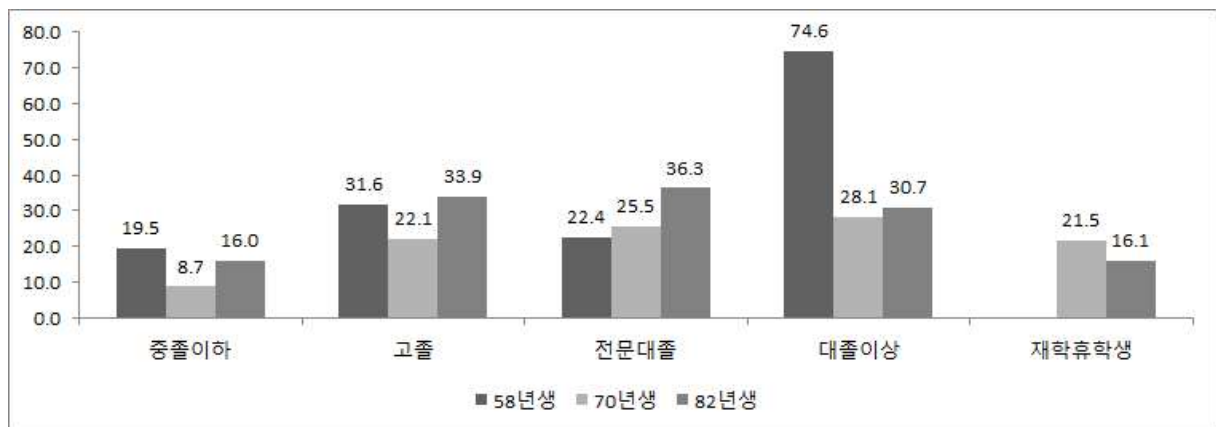
70년생의 경우 성별 고용률 격차가 가장 큰 집단은 대졸이상(28.1%p)이며, 가장 작은 집단은 중졸이하(8.7%p)이다. 58년생의 경우 고용률 격차가 가장 큰 집단은 성별 고용률 격차가 가장 큰 집단은 대졸이상(74.6%p)이며, 가장 낮은 집단은 중졸이하(19.5%p)이다.

82년생 여성의 학력별 고용률을 살펴본 결과, 58년생 대졸 여성을 제외하고 같은 학력의 70년생 및 58년생 여성보다 고용률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2년생 중졸이하 여성의 고용률(58.4%)은 같은 학력의 70년생 여성(72.6%), 58년생 여성(60.0%)보다 낮다. 82년생 고졸 여성의 고용률(53.0%)도 같은 학력의 70년생 여성(70.3%)이나 58년생 여성(53.3%)보다 낮다. 82년생 전문대졸 여성의 고용률(54.9%)도 같은 학력의 70년생 여성(69.9%), 58년생 여성(67.3%)보다 낮다. 82년생 대졸이상 여성의 고용률(62.6%)도 같은 학력의 70년생 여성(67.5%)보다 낮고 58년생 여성(9.6%)보다 높다.

재학휴학생을 제외하고, 대졸이상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82년생 여성과 달리, 70년생 여성은 중졸이하(72.6%), 58년생 여성은 전문대졸(67.3%)이 가장 높다.

[그림 2] 58년생, 70년생, 82년생의 성별 학력별 고용률 격차

(단위 : %p)



주: 남성 고용률-여성 고용률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B).

한편, 배우자가 있는 82년생 여성의 고용률은 49.7%이며, 미혼 여성과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여성의 경우 각각 81.2%, 81.3%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70년생 여성의 고용률이 67.9%이다.

4) 82년생 여성 실업률(3.2%)은 남성(3.4%)보다 낮고, 70년생-58년생 여성보다 높아

2016년 하반기 현재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을 분석한 결과, 82년생 여성의 실업률은 3.2%로 같은 나이 남성(3.4%)보다 0.2%p 낮다. 82년생 여성의 실업률은 70년생 여성(2.0%) 및 58년생 여성(1.8%)보다 높다. 70년생 여성의 실업률(2.0%)은 동년배 남성(1.4%)보다 0.6%p 높고, 58년생 여성의 실업률(1.8%)은 동년배 남성(3.2%)보다 1.4%p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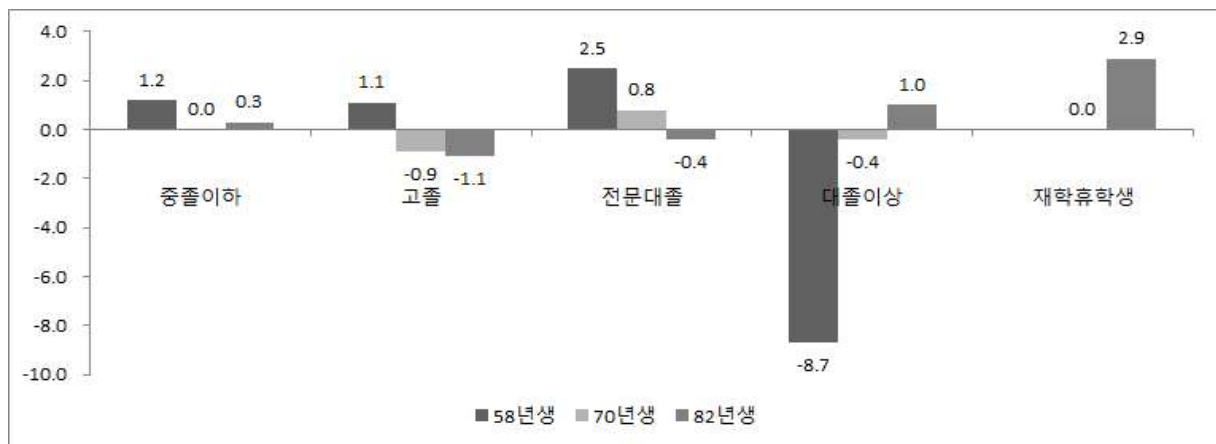
이러 성별 학력별 실업률 격차를 살펴보면, 82년생 여성은 고졸과 전문대졸에서 남성보다 각각 1.1%p, 0.4%p 높았으며, 재학휴학생(2.9%p), 대졸이상(1.0%p), 중졸이하(0.3%p)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즉, 82년생 여성은 중졸이하(5.8%)가 가장 높고, 고졸(5.4%), 전문대졸(4.5%), 대졸이상(1.3%) 순으로 하락한다. 82년생 남성의 경우에도 중졸이하(6.1%)가 가장 높고, 고졸(4.3%), 전문대졸(4.1%), 대졸(2.3%) 순으로 낮아진다.

58년생과 70년생의 성별 학력별 실업률 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8년생 대졸이상이 8.7%p(=13.0-4.3)로 가장 크고, 70년생 중졸이하의 여성과 남성 모두 실업률 2.7%로 격차가 0.0%p이다. 58년생 대졸이상 이외에도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높은 경우는 70년생 고졸(0.9%p), 70년생 대졸이상(0.4%p), 82년생 고졸(1.1%p), 82년생 전문대졸(0.4%p)이다.

82년생 여성이 학력이 낮을수록 실업률이 높은 반면, 58년생 여성의 실업률은 대졸(13.0%)이 가장 높은데, 이는 70년생이나 82년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높다. 70년생 여성의 경우 중졸이하의 실업률(2.0%)이 가장 높다.

[그림 3] 58년생, 70년생, 82년생의 성별 학력별 실업률 격차

(단위 : %p)



주: 남성 실업률-여성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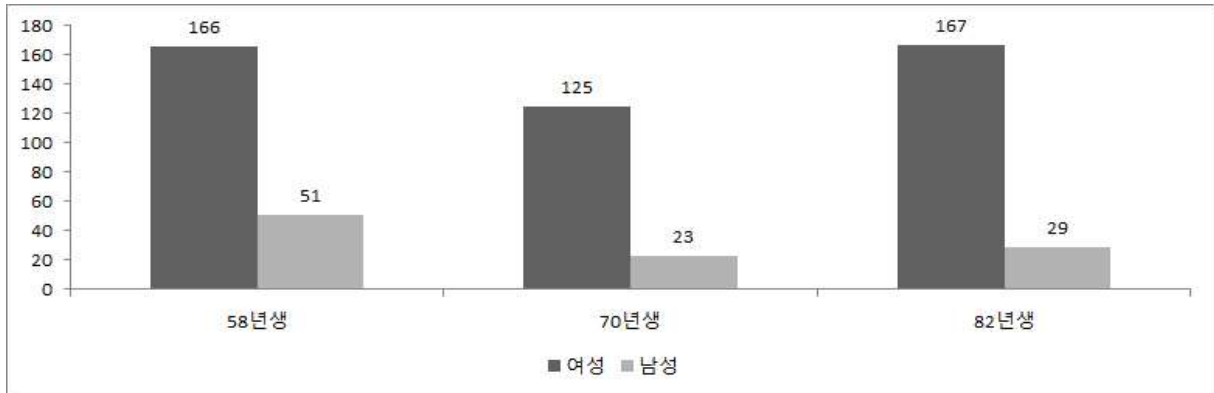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B).

5) 82년생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16만7천명으로 동년배 남성보다 13만8천명 많아

82년생 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16만7천명으로 가장 다수이며 같은 나이 남성(2만9천명)과 13만8천명 차이가 난다. 70년생 여성은 12만5천명으로 82년생 및 58년생 여성보다 적고, 동년배 남성(2만3천명)과 격차는 10만2천명이다. 58년생 여성의 경우 16만6천명으로 같은 나이 남성(5만1천명)보다 11만5천명 많다.

[그림 4] 58년생, 70년생, 82년생의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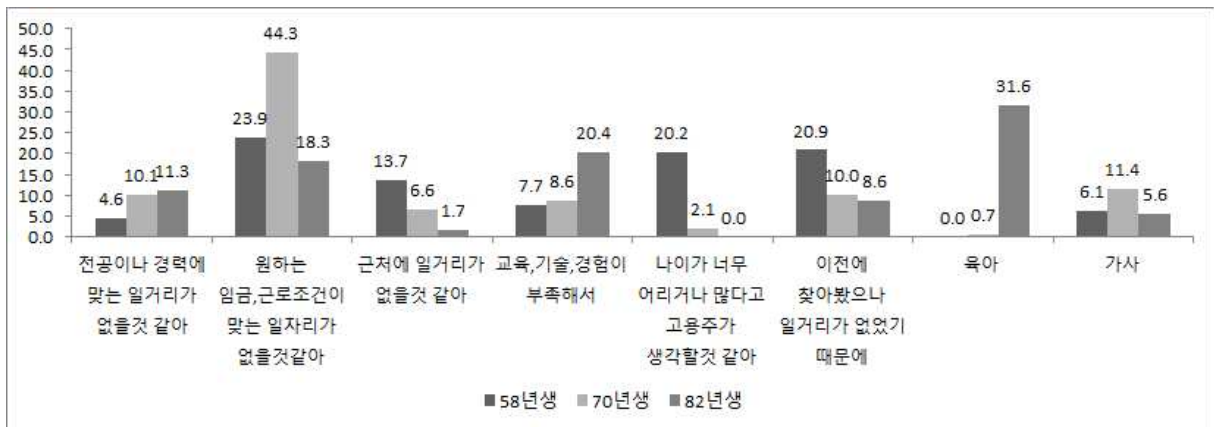
(단위 : 천명)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B).

[그림 5] 여성들이 직장을 구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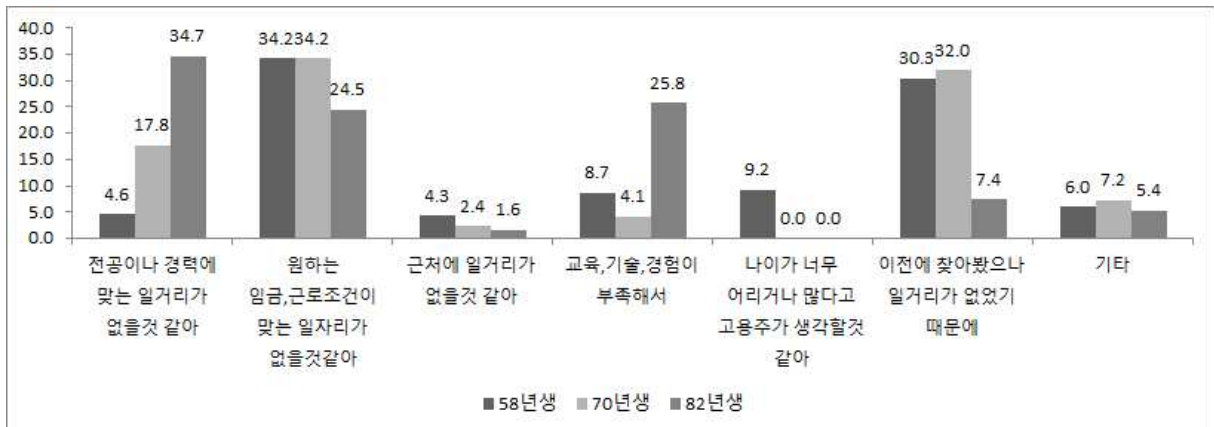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B).

[그림 6] 남성들이 직장을 구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B).

연령별 직장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82년생 여성의 경우 육아(31.6%), 교육·기술경험 부족(20.4%), 원하는 임금·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18.3%),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거나(11.3%), 이전에 찾아봤으나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이거나(8.6%), 가사(5.6%) 때문으로 나타났다. 육아에서 벗어났지만, 70년생 여성이 직장을 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원하는 임금·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기 때문이며(44.3%), 다음이 가사(11.4%)이다. 58년생 여성의 경우에도 원하는 임금·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거나(23.9%), 근처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거나(13.7%), 나이(20.2%)를 꼽았다.

2. 취업자 현황 및 임금노동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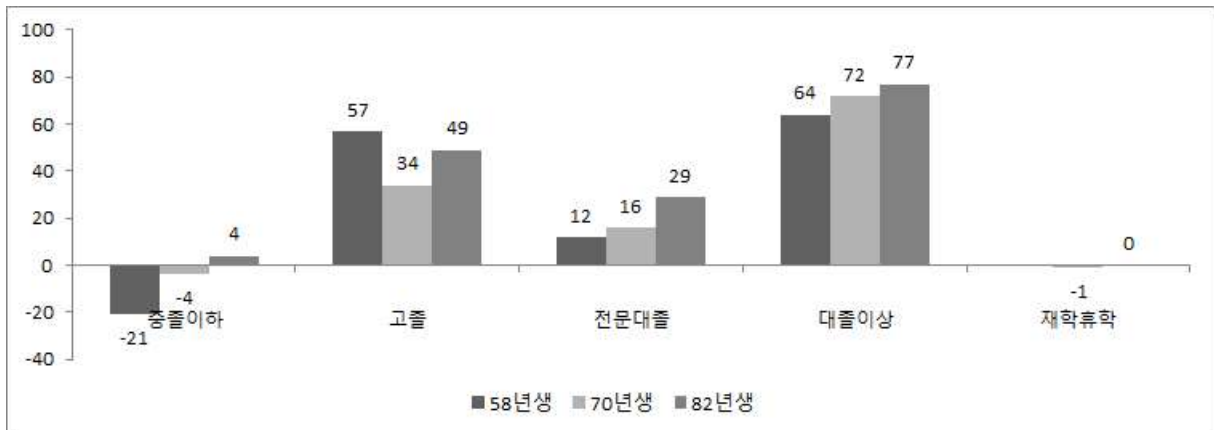
1) 82년생 대졸이상 성별 취업자수 격차 7만2천명으로 가장 커

82년생 여성 41만5천명 중에서 취업자는 24만명, 남성은 44만1천명 중에서 39만9천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5만9천명 적다([표 1] 참조). 82년생 여성 취업자는 70년생 여성(29만9천명)보다 5만9천명 적고, 58년생 여성(21만6천명)보다 2만4천명 많다. 70년생 여성은 남성(41만5천명)보다 11만6천명 적고, 58년생 여성은 남성(31만3천명)보다 9만7천명 적다.

학력별 취업자수를 살펴보면, 82년생 대졸이상 여성이 11만4천명으로, 동일 학력의 남성(19만1천명)보다 7만7천명 적은데, 이는 세 집단 통틀어 가장 많은 격차를 보인다([부표 1] 참조). 이어 고졸 여성 취업자 수(6만명)가 남성(10만9천명)보다 4만9천명 작다. 전문대졸의 경우 여성(5만7천명)이 남성(8만6천명)보다 2만9천명 적다. 중졸이하의 경우 여성(4천명)이 남성(8천명)보다 4천명 적다. 한편, 여성이 남성보다 더 취업자 수가 많은 경우는 58년생 중졸이하에서 여성(10만2천명)이 남성(8만1천명)보다 2만1천명 더 많고 70년생 중졸이하도 여성(1만6천명)이 남성(1만2천명)보다 4천명 더 많다.

[그림 7] 성별 학력별 취업자수 격차

(단위 : 천명)



주: 남성 취업자수-여성 취업자수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B).

한편, 82년생 여성 취업자 중에서 대졸이상(11만4천명)이 고졸(6만명), 전문대졸(5만7천명), 대학이상 재학휴학생(5천명), 중졸이하(4천명)보다 많다. 70년생 여성의 경우 고졸(16만명)이 대졸이상(8만5천명), 전문대졸(3만5천명), 중졸이하(1만6천명)보다 더 많다. 58년생 여성의 경우 중졸이하(10만2천명)가 가장 다수이고, 고졸(8만8천명), 전문대졸(8천명), 대졸이상(4천명) 순으로 나타났다.

2) 82년생 여성 취업자 10명 중 약 9명이 임금노동자, 임금노동자 비중 가장 높아

여성 취업자 중에서 임금노동자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82년생 여성으로 20만8천명(86.3%)이다. 동년배 남성은 33만9천명(85.1%)이다. 70년생 여성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는 22만1천명(73.8%)으로 취업자 10명 중 약 3명은 고용주, 자영업자이거나 무급가족종사자이다. 58년생 여성의 경우 임금노동자가 14만명(64.6%)이다. 세 연령층 모두 취업자 대비 임금노동자 비중이 남성보다 여성이 높다.

[표 2] 성별 연령별 취업자 구성

(단위 : 천명, %)

	여성			남성		
	58년생	70년생	82년생	58년생	70년생	82년생
취업자	216	299	240	313	415	399
임금노동자	140	221	208	186	301	339
비임금노동자	76	79	33	128	115	59
임금노동자/취업자	64.6	73.8	86.3	59.3	72.4	85.1

주: 비임금노동자는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더한 수이다.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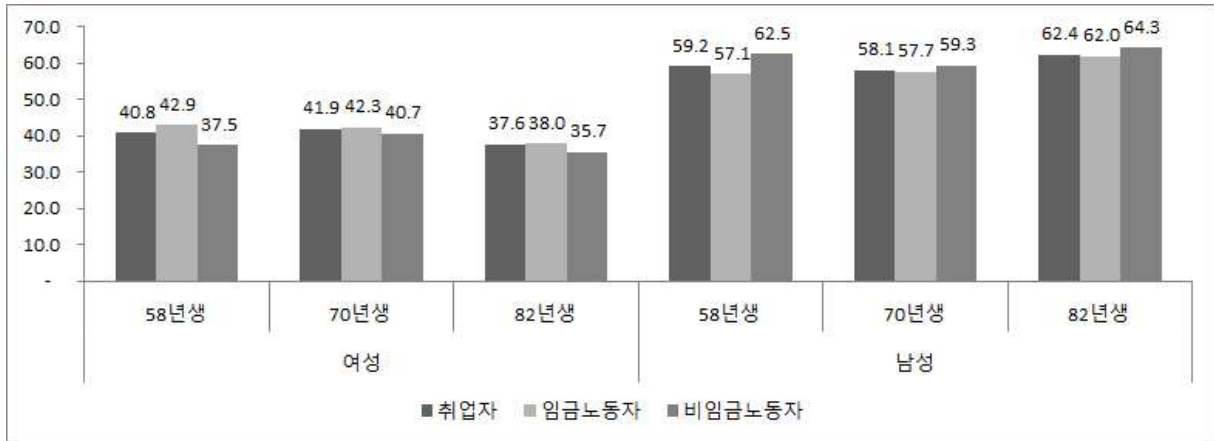
취업자의 성별 비중을 볼 때, 82년생 취업자 중에서 여성은 37.6%로, 남성(62.4%)보다 24.7%p 낮다. 70년생 취업자 중에서 여성은 41.9%, 남성은 58.1%로, 여성이 남성보다 16.2%p 낮다. 58년생 취업자 중에서 여성은 40.8%, 남성은 59.2%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18.4%p 낮다.

성별 임금노동자 비중을 살펴보면, 82년생 임금노동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년생과 58년생보다 낮다. 82년생 임금노동자 중에서 여성 비중이 38.0%로 남성(62.0%)보다 24.1%p 낮다. 70년생 임금노동자 중에서 여성 비중이 42.3%로 남성(57.7%)보다 15.3%p로 낮다. 58년생 임금노동자 중에서 여성 비중이 42.9%, 남성 비중이 57.1%로 여성이 남성보다 14.2%p 낮다.

한편, 비임금노동자 중에서 무급가족종사자는 82년생 대졸이상 여성이 3천명, 남성이 2천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천명 많다([부표 4] 참조). 무급가족종사자가 가장 많은 집단은 70년생 고졸 여성으로 2만명이며, 이어 58년생 중졸이하 여성이 1만9천명, 58년생 고졸 여성이 1만3천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취업자, 임금노동자, 비임금 노동자 성별 구성

(단위 : %)



주: 비임금노동자는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더한 수이다.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B).

3. 고용형태

1) 82년생 정규직 10명 중에서 여성과 남성 비율 3 대 7, 비정규직은 5 대 5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비정규직은 기간제와 임시일용직만 파악할 수 있고 시간제, 파견·용역·호출가내노동, 특수고용 노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간제나 임시일용직에 해당되면 비정규직으로 정의하고 규모를 살펴보았다.

2016년 하반기 현재, 82년생 정규직 41만명 중에서 여성은 14만명(34.1%), 남성은 27만명(65.9%)으로 31.8%p 차이를 보인다. 82년생 비정규직 13만6천명 중에서 여성은 6만8천명(49.6%), 남성은 6만9천명(50.4%)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0.8%p 높다. 70년생 정규직 여성이 11만1천명(33.2%)이라는 점에서 82년생 정규직 여성은 3만1천명 많고 0.9%p 높다. 58년생 정규직 여성이 4만3천명(27.9%)임에 비추어 82년생 정규직 여성은 9만7천명 많고 6.2%p 높다.

2) 남성은 모든 연령에서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많아

정규직 자체가 82년생이 가장 많고, 70년생, 58년생으로 갈수록 적어진다([부표 9] 참조). 이는 여성과 남성 모두 동일한 현상이나 고령층으로 갈수록 여성내 정규직 비율 축소가 남성내 정규직 비율 감소 추이보다 급격하다. 82년생 여성 노동자 20만8천명 중에서 정규직은 14만명(67.4%), 비정규직은 6만8천명(32.6%)으로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7만2천명(34.8%p) 많다. 82년생 남성의 경우 정규직이 27만명(79.8%), 비정규직이 6만9천명(20.2%)으로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20만1천명(59.6%p) 많다.

70년생 여성의 경우 정규직이 11만1천명(50.2%), 비정규직이 11만명(49.8%)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각각 절반이다. 70년생 남성의 경우 정규직이 22만3천명(74.2%)으로 비정규직이 7만7천명(25.8%)이라는 점에서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14만6천명(48.4%p) 많다.

58년생 여성의 경우 정규직이 4만3천명(30.9%), 비정규직이 9만6천명(69.1%)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5만3천명(38.2%p) 많다. 동년배 남성의 경우 정규직이 11만1천명(60.0%), 비정규직이 7만4천명(40.0%)으로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3만7천명(20.0%p)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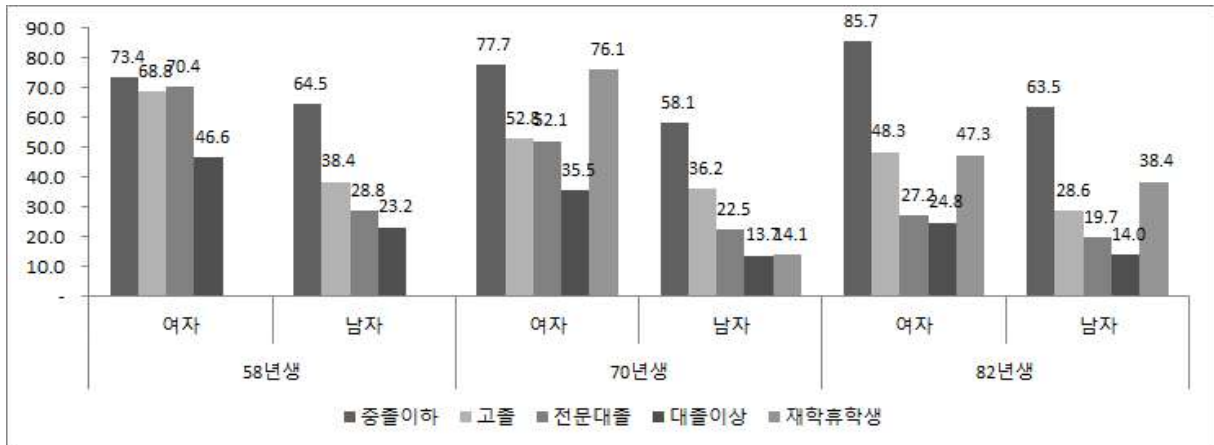
3) 82년생 중졸이하 여성 10명 중 9명 가까이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율은 모든 성별 및 연령에서 학력이 낮을수록 높다. 특히 82년생 중졸 이하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85.7%로 가장 높다. 70년생 대졸이상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13.7%로 가장 낮는데, 82년생 대졸이상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24.8%)보다 낮다. 또한, 70년생 대졸이상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35.5%로, 58년생 대졸이상 남성(23.2%)보다 높다.

학력격차가 상대적으로 사라진 82년생의 경우 동일한 중졸이하라 하더라도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85.7%)이 남성(63.5%)보다 22.2%p 높고, 같은 고졸이라도 여성(48.3%)이 남성(28.6%)보다 높다. 전문대졸의 경우 여성(27.2%)이 남성(19.7%)보다 7.5%p 높고, 대졸이상 여성(24.8%)의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14.0%)보다 10.8%p 높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동일한 학력에서 성별 비정규직 비중 격차가 더욱 확대되지만, 학생을 제외하고 58년생 전문대졸의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전문대졸이라도 여성(70.4%)의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28.8%)보다 41.6%p 높다.

[그림 9] 58년생, 70년생, 82년생 성별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

(단위 : %)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B).

[표 3] 학력별 비정규직 규모

(단위 : 천명)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재학휴학
58년생	여성	정규직	17	18	1	6	-
		비정규직	48	40	3	5	-
	남성	정규직	16	49	9	37	-
		비정규직	29	31	4	11	-
70년생	여성	정규직	3	57	13	38	0
		비정규직	10	63	14	21	2

82년생	남성	정규직	4	82	30	107	1
		비정규직	5	46	9	17	0
	여성	정규직	1	26	37	75	2
		비정규직	4	24	14	25	2
	남성	정규직	3	62	58	146	2
		비정규직	4	25	14	24	1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B).

4. 월평균임금, 저임금 노동자 비율

1) 82년생 여성은 남성보다 67만원 낮고, 70년생 및 58년생 여성은 남성보다 168만원 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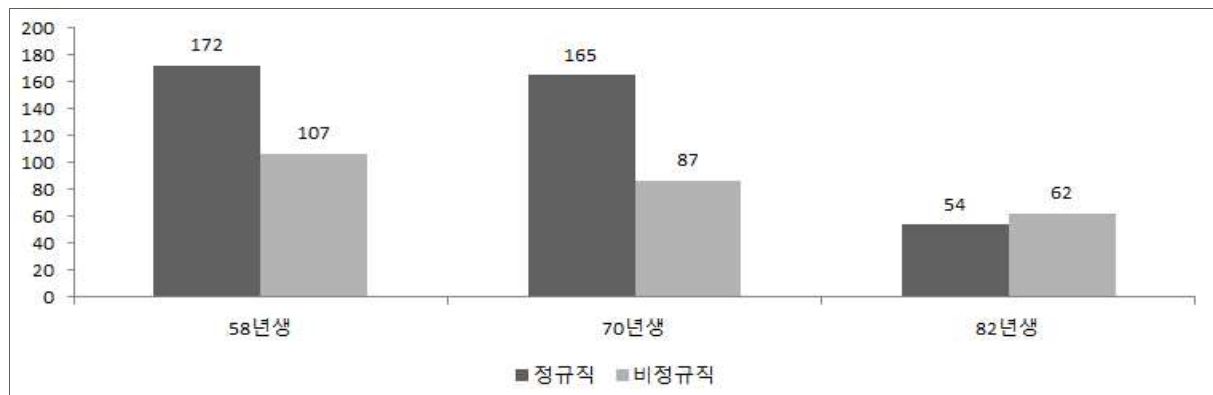
여성의 임금이 나이가 들수록 낮아지는 반면, 남성의 임금은 70년생이 가장 높고 82년생이 가장 낮다. 2016년 하반기 전체 노동자 월평균임금은 238만원이며, 82년생 여성은 이보다 19만원 낮은 219만원이다. 같은 나이 남성의 임금은 286만원으로, 남성 임금을 100만원이라 할 때, 여성 임금은 76만6천원이다. 82년생 여성의 임금은 70년생 여성의 임금(188만원)보다 31만원 높고, 58년생 여성(144만원)보다 75만원 높다. 70년생 여성(188만원)에 비해 남성의 월평균임금은 356만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68만원 적다. 58년생 여성(144만원)도 남성(312만원)보다 168만원 낮다.

2) 82년생 정규직 여성은 남성보다 54만원 낮고, 비정규직 여성은 남성보다 62만원 적어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서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임금이 더 높고, 동일한 고용형태라 하더라도 성별 임금격차를 보인다. 82년생 정규직 여성은 249만원인 반면, 남성은 303만원으로 여성이 54만원 더 적다. 82년생 비정규직 여성은 158만원인데 비해 남성은 220만원으로 여성이 62만원 더 적다. 82년생 정규직 여성은 70년생 정규직 여성(235만원)보다 14만원 더 높고, 58년생 정규직 여성(197만원)보다 52만원 더 많다. 82년생 비정규직 여성은 70년생 비정규직 여성(141만원)보다 17만원 더 높고, 58년생 비정규직 여성(120만원)보다 38만원 더 많다.

[그림 10] 58년생, 70년생, 82년생 성별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격차

(단위 : 만원)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B).

70년생 정규직 여성이 235만원인 반면, 남성은 165만원 더 많은 400만원을 받는다. 70년생 비정규직 여성이 141만원인 반면, 남성은 87만원 더 많은 228만원이다. 58년생 정규직 여성이 197만원인 반면, 남성은 172만원 더 많은 369만원이다. 58년생 비정규직 여성이 120만원인 반면 남성은 이보다 107만원 더 많은 227만원이다.

3) 82년생 중에서 고졸 여성이 남성보다 80만원 적어 가장 격차가 큰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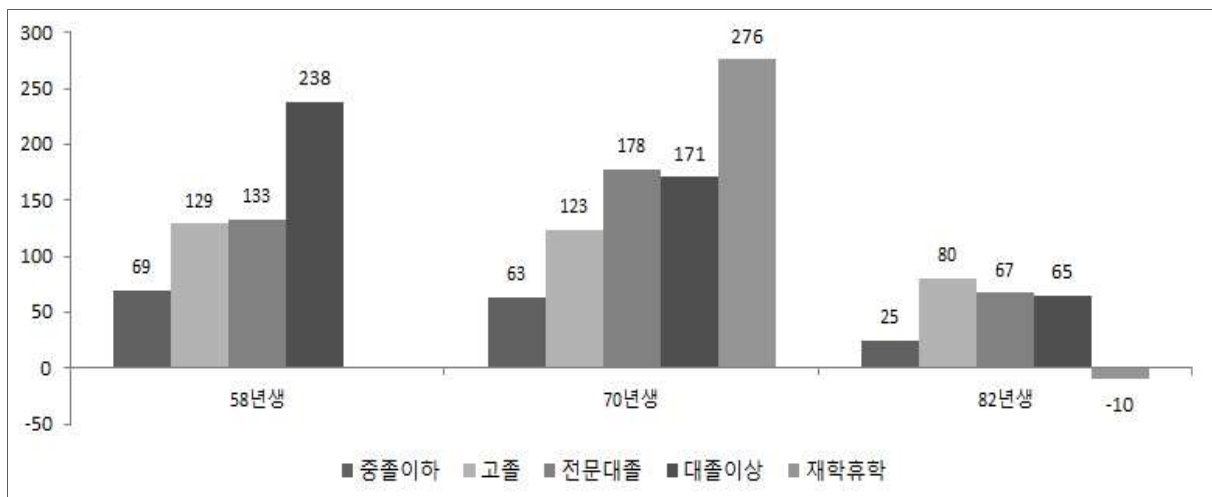
학력별 월평균임금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서 학력이 낮을수록 임금이 낮다. 동일한 학력이라 하더라도 성별 임금격차가 뚜렷하며, 82년생보다 70년생이, 70년생보다 58년생의 성별 학력별 임금격차가 크다. 82년생 대졸이상 여성은 258만원으로 남성(323만원)보다 65만원 낮고 전문대졸 여성은 200만원으로 남성(267만원)보다 67만원 낮다. 82년생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집단은 고졸로 여성(161만원)이 남성(241만원)보다 80만원 낮다. 중졸이하의 여성의 경우 141만원으로 남성(166만원)보다 25만원 더 적다.

재학휴학생을 제외하고, 70년생의 경우 전문대를 졸업한 여성이 166만원 받는 동안 남성(344만원)이 178만원을 더 받아 동년배 중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집단이다. 대졸이상 여성이 278만원으로, 남성(449만원)보다 171만원 더 적다. 70년생의 다수를 차지하는 고졸의 경우 여성이 157만원이지만 남성은 280만원으로 123만원 격차를 보인다. 중졸이하 여성의 경우 130만원으로 남성(193만원)보다 63만원 낮다.

58년생의 경우 대졸이상 여성이 247만원인 반면 남성이 485만원으로 238만원 격차를 보여 동년배 중에서 가장 임금격차가 큰 집단이다. 58년생 여성의 다수인 중졸이하의 경우 월 125만원으로 남성(194만원)보다 69만원 낮다. 고졸 여성의 경우 141만원으로 남성(270만원)보다 129만원 적다. 전문대를 졸업한 여성의 경우 한 달 평균 201만원으로 동일 학력의 남성(334만원)보다 133만원 적다.

[그림 11] 58년생, 70년생, 82년생 성별 학력별 월평균임금 격차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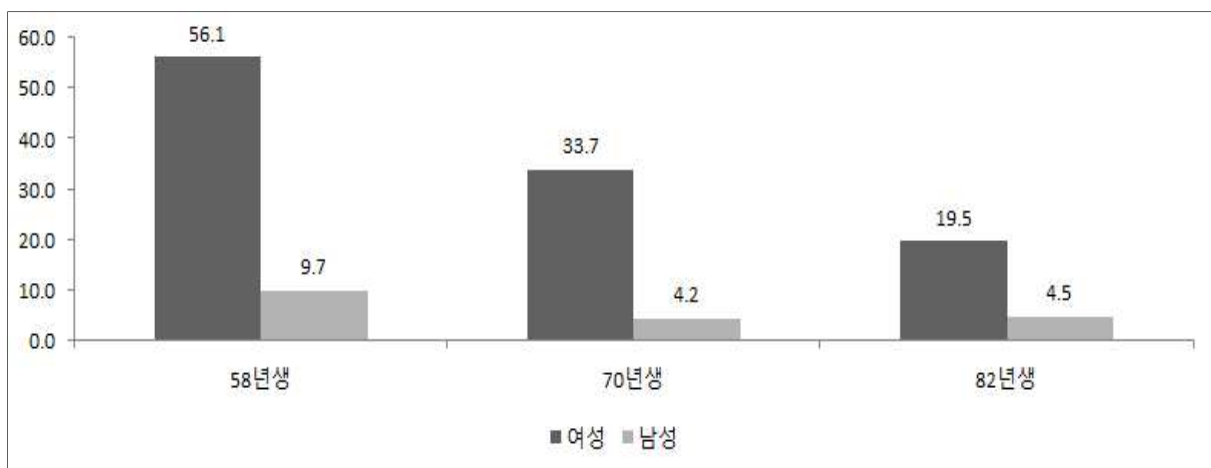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B).

4) 82년생 여성 5명 중 1명은 저임금

2016년 하반기 중위임금은 200만원이며, 저임금 기준은 중위임금의 2/3인 133만원 미만이다. 82년생 여성 노동자 20만8천명 중에서 4만1천명(19.5%)이 저임금을 받고 있고 있으며, 82년생 남성은 33만9천명 중에서 1만5천명(4.5%)이다. 70년생 여성 노동자 22만1천명 중에서 7만4천명(33.7%)이 저임금이며 남성은 30만1천명 중에서 1만3천명(4.2%)이다. 58년생 여성 노동자 14만명 중에서 7만8천명(56.1%)이 저임금이며, 남성 18만6천명 중에서는 1만8천명(9.7%)이 해당된다.

[그림 12] 58년생, 70년생, 82년생 성별 저임금 노동자 비중

(단위 : %)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B).

5. 노동시간

1) 82년생 여성이 남성보다 1주일에 노동시간 5.6시간 짧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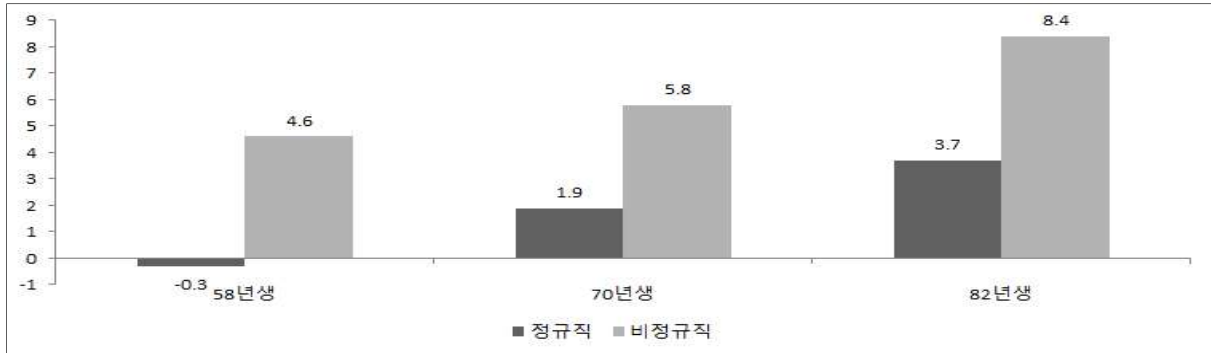
82년생의 성별 노동시간 격차가 5.6시간으로 70년생(4.5시간) 및 58년생(3.8시간)보다 더 길다. 82년생 여성이 한 주에 40.3시간 일하는 동안에, 같은 나이 남성은 45.9시간 일한다. 82년생 여성은 70년생 여성(40.6시간)과 58년생 여성(40.6시간)에 비해 노동시간이 0.3시간 더 짧다. 70년생 여성의 경우 남성(45.1시간)보다 4.5시간 짧고, 58년생 여성은 남성(44.4)보다 3.8시간 짧다.

2) 82년생의 성별 고용형태별 노동시간 격차가 70년생이나 58년생 보다 커

82년생 정규직 여성의 노동시간은 1주에 42.6시간으로 남성(46.3시간)보다 3.7시간 짧다.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주36시간으로 남성(44.4시간)보다 8.4시간 짧다. 82년생 정규직 여성은 70년생 정규직 여성(44시간)보다 1.4시간 짧고, 58년생 정규직 여성(45.7시간)보다 3.1시간 더 짧다. 82년생 비정규직 여성은 70년생 비정규직 여성(37.1시간)보다 1.1시간 짧고, 58년생 비정규직 여성(38.3시간)보다 2.3시간 짧다.

[그림 13] 58년생, 70년생, 82년생 성별 고용형태별 노동시간 격차

(단위 : 시간)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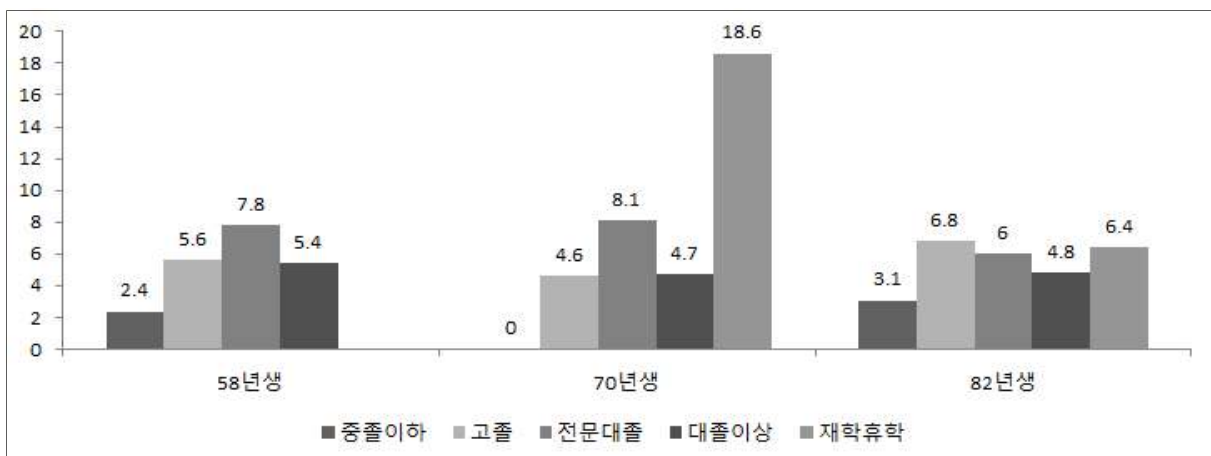
70년생 정규직 여성은 주44시간으로 남성(45.9시간)보다 1.9시간 짧다. 70년생 비정규직 여성은 37.1시간으로 남성(42.9시간)보다 5.8시간 짧다. 58년생 정규직 여성은 주45.7시간으로 남성(45.4시간)보다 0.3시간 더 길게 일하며, 비정규직 여성은 주 38.3시간으로 남성(42.9시간)으로 4.6시간 짧게 일한다.

3) 82년생 중에서 고졸이 1주일에 6.8시간으로 성별 노동시간 격차가 가장 큰 집단

주당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서 저학력층의 노동시간이 고학력층보다 길고, 여성보다 남성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부표 11] 참조). 재학휴학생을 제외하고, 성별 노동시간 격차가 가장 큰 집단은 70년생 전문대졸로 여성이 37.7시간으로 남성(45.8시간)이 8.1시간 더 일한다. 주당노동시간 격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집단도 70년생 중졸이하로 여성과 남성 모두 주43.1시간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일학력일 때 82년생 남성이 여성보다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시간 격차가 가장 큰 집단은 고졸로 남성이 여성보다 6.8시간 더 일한다.

[그림 14] 58년생, 70년생, 82년생 성별 학력별 노동시간 격차

(단위 : 시간)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B).

6. 근속년수

1) 82년생만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근속년수 0.1년 더 길어

현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년수를 살펴보면, 82년생 여성은 4.3년으로 같은 나이 남성(4.2년)보다 0.1년 길다. 80년생 여성은 70년생 여성(5.1년)보다 0.8년 길고, 58년생 여성(4.7년)보다 0.4년 짧다. 70년생 여성(5.1년)은 남성(9.6년)에 비해 4.5년 짧고, 58년생 여성(4.7년)은 남성(10.6년)에 비해 5.9년 짧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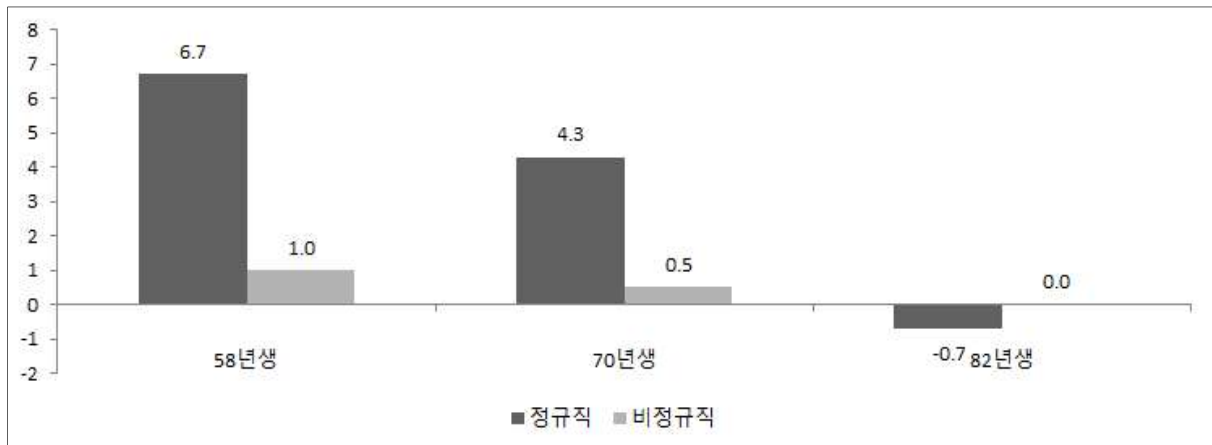
2) 82년생 정규직 여성의 근속년수는 남성보다 0.7년 더 길고, 비정규직은 성별 동일

평균근속년수를 살펴보았을 때, 82년생 정규직 여성은 5.5년으로 남성(4.8년)보다 0.7년 더 길고 비정규직 여성은 남성과 같은 1.8년이다. 82년생 정규직 여성은 70년생 정규직 여성(7.4년)보다 1.9년 짧고, 58년생 정규직 여성(8.2년)보다 2.7년 짧다. 82년생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70년생 비정규직 여성(2.8년)보다 1.0년 짧고, 58년생 비정규직 여성(3.1년)보다 1.3년 짧다.

70년생 정규직 여성은 7.4년으로 남성(11.7년)보다 4.3년 짧고, 비정규직 여성은 2.8년으로 남성(3.3년)보다 0.5년 더 짧다. 58년생 정규직 여성은 8.2년으로 남성(14.9년)보다 6.7년 더 짧고, 비정규직 여성은 3.1년으로 남성(4.1년)보다 1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 58년생, 70년생, 82년생 성별 고용형태별 근속년수 격차

(단위 :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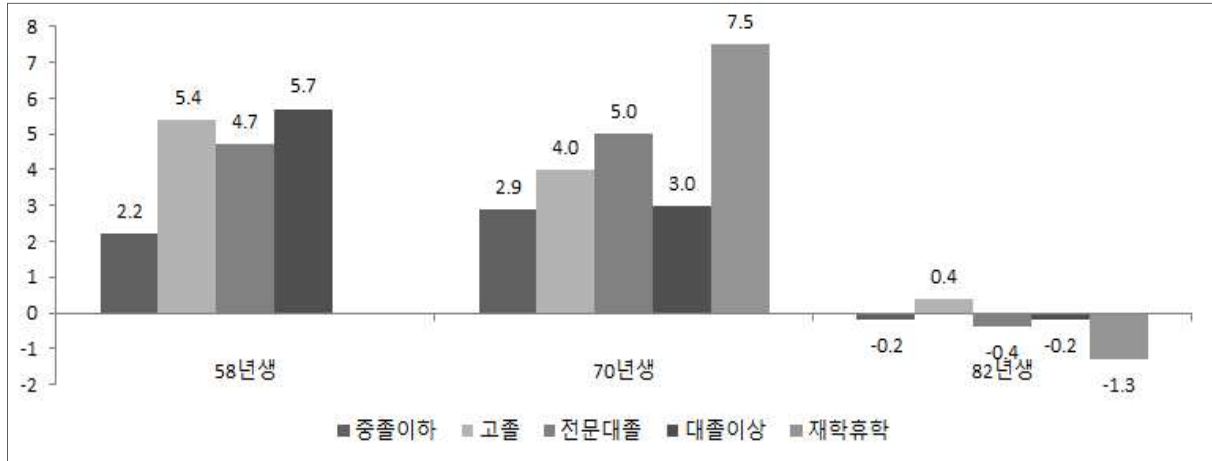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B).

학력별 평균근속년수를 살펴볼 때, 82년생 고졸과 58년생, 70년생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짧다. 반면, 82년생 여성의 평균근속년수는 중졸이하에서 남성보다 0.2년 길고, 전문대졸에서 0.4년, 대졸이상에서 0.2년 더 길다. 고졸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0.4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70년생 여성의 다수인 고졸의 경우 남성보다 근속년수가 4년 짧고, 전문대졸은 5년, 대졸은 3년, 중졸이하는 2.9년 짧다. 58년생 여성의 다수인 중졸이하의 경우 남성보다 2.2년 짧고, 고졸의 경우 5.4년, 전문대졸의 경우 4.7년, 대졸이상의 경우 5.7년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6] 58년생, 70년생, 82년생 성별 학력별 근속년수 격차

(단위 : 년)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B).

7. 직업

1) 82년생 여성과 남성 모두 직업 1위는 경영관련 사무원, 여성이 남성보다 3만5천명 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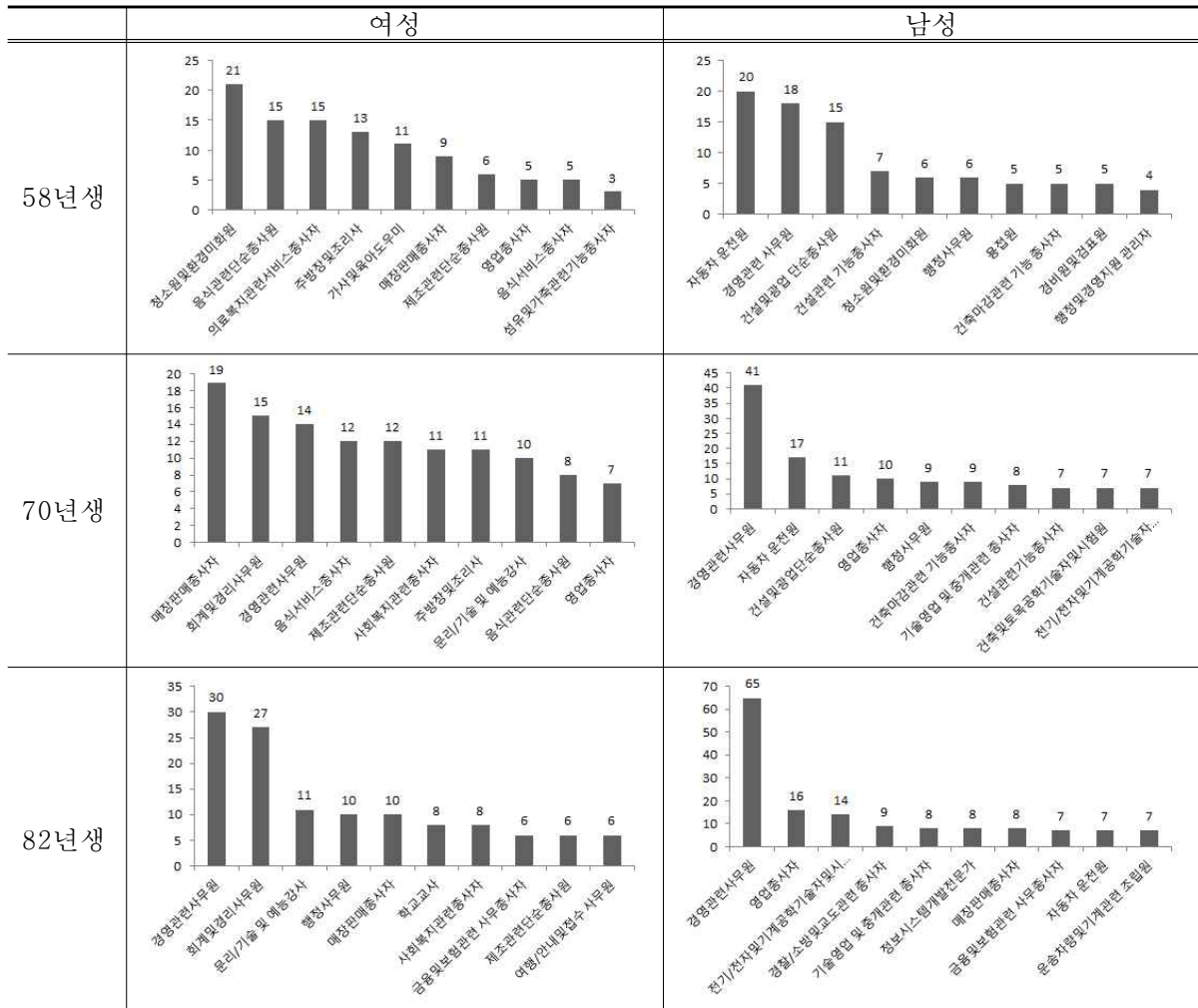
임금노동자의 성별 연령별 10대 직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부표 10] 참조). 82년생 여성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직업 1위는 경영관련 사무원(3만명)이다. 이어 회계 및 경리사무원(2만7천명), 문리/기술 및 예능강사(1만1천명), 행정사무원(1만명), 매장판매종사자(1만명), 학교 교사(8천명), 사회복지관련 종사자(8천명), 금융 및 보험관련 사무 종사자(6천명), 제조관련단순종사원(6천명), 여행/안내 및 접수 사무원(6천명)이다.

82년생 남성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직업 1위도 경영관련 사무원(6만5천명)이다. 이어 영업종사자(1만6천명), 전기전자 및 기계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만4천명), 경찰/소방 및 교도 종사자(9천명), 기술영업 및 중개 종사자(8천명), 정보시스템개발 전문가(8천명), 매장판매종사자(8천명), 금융 및 보험관련 사무 종사자(7천명), 자동차 운전원(7천명), 운송차량 및 기계관련 조립원(7천명)이다.

70년생이나 58년생과 달리, 82년생 여성과 남성 모두 경영관련 사무원이 직업 1위이다. 경영관련 사무원 이외에도 82년생 여성과 남성 모두 10대 직업에 매장판매종사자, 금융 및 보험관련 사무종사자가 포함되어 있다. 82년생 여성과 70년생 여성의 10대 직업에 매장판매종사자와 회계 및 경리 사무원, 경영관련 사무원, 제조관련단순종사원,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문리/기술 및 예능강사 등 6개 직업이 공통 분모이다. 82년생 여성과 58년생 여성 10대 직업에는 매장판매종사자와 제조관련 단순종사원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82년생 여성과 70년생 남성, 58년생 남성은 10대 직업 안에 경영관련 사무원과 행정사무원이 있다.

[그림 17] 임금노동자 10대 직업

(단위 : 천명)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B).

2) 82년생 여성의 비정규직 다수 직업은 강사와 매장판매직

82년생 여성 10대 직업의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본 결과, 행정사무원이 7.5%(1천명)로 가장 낮고 이어 금융 및 보험관련 사무종사자 9.8%(1천명)이다. 문리/기술 예능 강사의 경우 91.2%(1만명)가, 매장판매종사자 중에서 60.7%(6천명)가 비정규직이다. 82년생 여성과 남성 직업 1위인 경영관련 사무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여성은 11.5%(4천명)이나 남성은 7.1%(5천명)이다. 경영관련 사무원은 70년생 여성 직업 3위이자 남성 직업 1위인데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30.7%(4천명)이고 남성의 경우 9.1%(4천명)이다. 경영관련 사무원인 82년생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58년생 남성 경영관련 사무원(7.9%)보다 낮다.

영업 종사자인 70년생 여성은 93.1%(6천명)가 비정규직이지만 남성은 36.7%(4천명)가 해당된다. 58년생 여성 직업 1위이자 남성 직업 5위인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의 경우 여성은 72.9%(1만6천명)가 비정규직이나 남성은 65.6%(4천명)이다.

[표 4] 성별 연령별 10대 직업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

(단위 : 천명, %)

	여성	인원	비중	남성	인원	비중
58년생	청소원및환경미화원	16	72.9	자동차 운전원	6	30.1
	음식관련단순종사원	13	88.2	경영관련 사무원	1	7.9
	의료복지관련서비스종사자	10	69.0	건설및광업 단순종사원	14	97.1
	주방장및조리사	7	53.6	건설관련 기능종사자	6	89.1
	가사및육아도우미	10	96.7	청소원및환경미화원	4	65.6
	매장판매종사자	6	69.0	행정사무원	0	5.7
	제조관련단순종사원	4	58.1	용접원	3	66.3
	영업종사자	5	100.0	건축마감관련 기능 종사자	4	81.6
	음식서비스종사자	4	83.0	경비원및검표원	3	64.2
	섬유및가죽관련기능종사자	1	38.6	행정및경영지원 관리자	2	42.6
70년생	매장판매종사자	12	60.3	경영관련사무원	4	9.1
	회계및경리사무원	3	20.6	자동차 운전원	6	34.1
	경영관련사무원	4	30.7	건설및광업단순종사원	10	94.4
	음식서비스종사자	10	83.7	영업종사자	4	36.7
	제조관련단순종사원	6	47.8	행정사무원	-	0.0
	사회복지관련종사자	4	33.4	건축마감관련 기능종사자	7	80.9
	주방장및조리사	6	51.6	기술영업 및 중개관련 종사자	1	16.9
	문리/기술 및 예능강사	9	88.1	건설관련기능종사자	6	77.6
	음식관련단순종사원	6	82.0	건축및토목공학기술자및시험원	0	0.3
	영업종사자	6	93.1	전기/전자및기계공학기술자및시험원	0	5.7
82년생	경영관련사무원	4	11.5	경영관련사무원	5	7.1
	회계및경리사무원	4	13.9	영업종사자	5	29.0
	문리/기술 및 예능강사	10	91.2	전기/전자및기계공학기술자및시험원	0	3.3
	행정사무원	1	7.5	경찰/소방및교통관련 종사자	0	2.0
	매장판매종사자	6	60.7	기술영업 및 중개관련 종사자	1	13.2
	학교교사	2	23.6	정보시스템개발전문가	1	10.5
	사회복지관련종사자	2	20.5	매장판매종사자	2	26.9
	금융및보험관련 사무종사자	1	9.8	금융및보험관련 사무종사자	1	10.7
	제조관련단순종사원	4	72.0	자동차 운전원	2	26.8
	여행/안내및접수 사무원	4	65.3	운송차량및기계관련 조립원	1	12.2

주 : 비중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더한 수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B).

3) 82년생 10대 직업인 경영관련사무원과 금융및보험관련 사무종사자 모두 성별 임금격차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으로 직업분리가 지적되어 왔다는 점에서 여성과 남성의 다수가 선택한 직업의 임금, 노동시간, 근속년수를 살펴보았다. 58년생보다 70년생이, 70년생보다 82년생 여성의 10대 직업에 이전 세대보다 고임금 직업이 포함되어 있다. 82년생 여성의 경우 금융 및 보험관련 사무종사자가 318만원으로 가장 고임금이며, 월 200만원 이상 버는 직업이 경영관련사무원(259만원), 회계 및 경리사무원(205만원), 행정사무원(241만원), 학교교사(265만원)가 있다. 70년생 여성의 경우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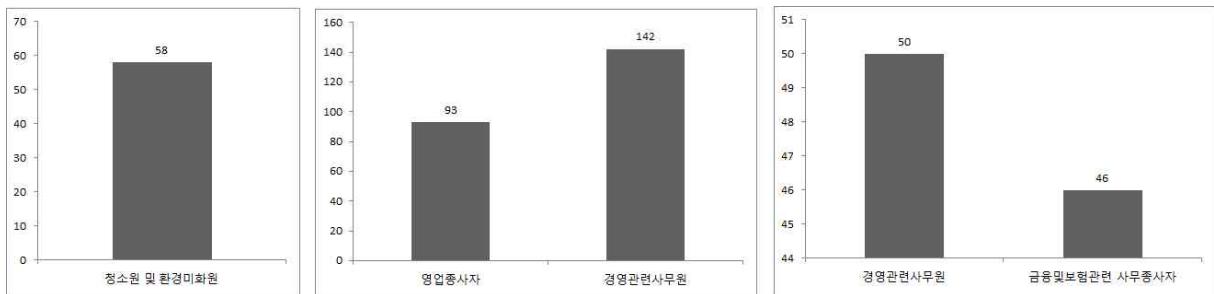
영관관련사무원(268만원)이 10대 직업 중에서 가장 임금이 높고, 200만원 이상 받는 직업이 회계 및 경리사무원(211만원)과 영업종사자(207만원)에 그치고 있다. 58년생 여성의 경우 200만원 이상 받는 직업이 영업종사자(200만원) 하나이다.

82년생, 70년생, 58년생 모두 10대 직업에서 남성의 임금이 여성의 임금보다 더 높다. 동일한 직업이라 하더라도 남성의 임금이 더 높은데, 경영관련사무원의 경우 여성(259만원)이 남성(309만원)보다 50만원 적다. 금융 및 보험관련 사무종사자의 경우에도 여성(318만원)이 남성(364만원)보다 46만원 낮다. 70년생 영업종사자의 경우 여성(207만원)이 남성(300만원)보다 93만원 적다. 58년생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도 여성(123만원)이 남성(175만원)보다 52만원 낮다.

10대 직업의 주당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모든 직업에서 남성의 노동시간이 여성보다 길다. 노동시간도 길고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경우는 58년생 음식서비스종사자인데 주49시간 일하고 한달 134만원을 받는다. 남성의 경우에도 82년생 자동차 운전원이 한 주에 53.1시간 일하고도 월 231만원을 받으며, 58년생 경비원 및 검표원도 52.8시간 일하지만 월 168만원을 받는다. 70년생 남성 중에서도 자동차운전원이 1주에 50.3시간 일하지만 월급은 242만원이다.

[그림 18] 58년생, 70년생, 82년생 성별 직업별 임금격차

(단위 : 만원)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B).

10대 직업의 평균근속년수를 살펴볼 때, 82년생을 제외하고 70년생 남성과 58년생 남성의 경우 근속년수가 10년 이상되는 직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70년생 여성과 58년생 여성의 10대 직업에 근속년수가 10년 이상 되는 직업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남성의 직업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58년생 남성의 경우 행정사무원(26.7년), 행정및경영지원 관리자(17.4년), 경영관련 사무원(13.7년), 자동차 운전원(12.7년) 등 모두 4개 직업이 포함되어 있다. 70년생 남성의 경우에도 행정사무원(17.8년), 전기/전자및기계공학기술자및시험원(15년), 경영관련사무원(12년), 건축및토목공학기술자및시험원(11.6년) 등 네 개가 포함되어 있다.

동일한 직업이라도 여성의 근속년수가 남성보다 더 짧다. 예를 들어, 70년생 영업종사자의 경우 여성은 4.8년이지만 남성은 7.1년이다. 58년생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의 경우 여성은 3.6년이지만 남성은 6.8년으로 나타났다. 70년생 경영관련 사무원도 여성은 3.4년이지만 남성은 12년이다.

동일한 직업인데, 여성보다 근속년수가 짧은 남성의 임금이 더 많다. 예를 들어, 82년생 금융 및 보험관련 사무종사자의 경우 여성의 근속년수가 7년이고 남성이 5.7년이지만 남성이 46만원 더 많다. 경영관련 사무원도 여성이 5.3년이고 남성이 5.2년이지만 남성의 임금이 50만원 더 높다.

[표 5] 연령별 성별 직업별 월평균임금, 주당노동시간, 현 직장에서의 근속년수

(단위 : 만원, 시간, 년)

	여성	임금	노동 시간	근속 년수	남성	임금	노동 시간	근속 년수
58 년 생	청소원및환경미화원	123	39.9	3.6	자동차 운전원	299	43.7	12.7
	음식관련단순종사원	118	41.9	1.1	경영관련 사무원	386	42.8	13.7
	의료복지관련서비스종사자	109	37.3	2.8	건설및광업 단순종사원	167	41.4	1.5
	주방장및조리사	154	46.4	4.2	건설관련 기능종사자	228	45.9	3.1
	가사및육아도우미	95	35.3	1.9	청소원및환경미화원	175	41.6	6.8
	매장판매종사자	124	42.9	3.3	행정사무원	469	42.0	26.7
	제조관련단순종사원	122	43.0	3.9	용접원	227	43.5	4.7
	영업종사자	200	40.2	9.1	건축마감관련 기능 종사자	209	45.2	3.9
	음식서비스종사자	134	49.0	2.9	경비원및검표원	168	52.8	2.1
	섬유및가죽관련기능종사자	132	42.0	5.5	행정및경영지원 관리자	851	41.5	17.4
70 년 생	매장판매종사자	142	43.3	3.4	경영관련사무원	410	45.0	12.0
	회계및경리사무원	211	40.1	5.0	자동차 운전원	242	50.3	4.8
	경영관련사무원	268	42.2	6.1	건설및광업단순종사원	177	38.9	1.1
	음식서비스종사자	135	46.6	2.0	영업종사자	300	44.3	7.1
	제조관련단순종사원	128	39.8	3.4	행정사무원	415	43.1	17.8
	사회복지관련종사자	165	40.4	4.1	건축마감관련 기능종사자	240	45.4	4.9
	주방장및조리사	139	40.8	3.4	기술영업 및 중개관련 종사자	477	44.0	9.2
	문리/기술 및 예능강사	160	29.0	6.1	건설관련기능종사자	257	45.9	2.8
	음식관련단순종사원	123	41.6	1.0	건축및토목공학기술자및시험원	470	44.8	11.6
	영업종사자	207	41.3	4.8	전기/전자및기계공학기술자및시험원	558	46.7	15.0
82 년 생	경영관련사무원	259	42.0	5.3	경영관련사무원	309	45.2	5.2
	회계및경리사무원	205	41.1	4.7	영업종사자	291	45.2	4.0
	문리/기술 및 예능강사	146	30.6	2.0	전기/전자및기계공학기술자및시험원	370	46.3	5.2
	행정사무원	241	40.1	7.0	경찰/소방및교도관련 종사자	326	50.6	6.3
	매장판매종사자	158	38.9	1.8	기술영업 및 중개관련 종사자	316	43.8	4.2
	학교교사	265	37.8	6.4	정보시스템개발전문가	324	44.0	4.3
	사회복지관련종사자	180	41.5	3.7	매장판매종사자	238	50.3	2.1
	금융및보험관련 사무종사자	318	41.8	7.0	금융및보험관련 사무종사자	364	45.3	5.7
	제조관련단순종사원	112	40.9	1.6	자동차 운전원	231	53.1	2.2
	여행/안내및접수 사무원	199	41.5	3.0	운송차량및기계관련 조립원	249	46.6	4.0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B).

Ⅲ. 요약 및 함의

지금까지 교육차별이 거의 사라진 세대인 82년생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노동 책임으로 인해 노동 시장 참여부터 고용형태, 임금 차별의 대상임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서 함의를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2016년 하반기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82년생 여성은 41만5천명, 남성은 44만1천명이고,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82년생 여성은 24만8천명, 남성은 41만3천명이다. 즉, 82년생 여성은 남성보다 2만6천명 적게 태어났으나 경제활동인구는 남성보다 16만5천명 적다.

둘째, 비경제활동인구는 82년생 여성이 16만7천명으로 동년배 남성보다 13만8천명 많다. 또한, 58년생 여성(16만6천명)과 남성(5만1천명), 70년생 여성(12만5천명)과 남성(2만3천명)보다 많다. 이 분석 결과는 82년생 여성이 자발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었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다만, 설문에 응한 82년생 여성 중에서 직업을 구하지 않는 이유 1위는 육아이다. 가사와 육아의 책임이 여전히 여성에게 주어진 결과라고 볼 때, 2016년에 만 나이 34세인 82년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9.8%, 고용률은 57.9%로 58년생 여성을 제외하고 동년배 남성, 70년생 여성과 남성, 58년생 남성에 비해 가장 낮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82년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1.0%, 고용률이 49.7%로 나타나 육아로부터 벗어난 나이로 추정되는 70년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69.1%, 고용률 67.9%보다 낮다.

셋째, 취업자의 성별 비중을 볼 때, 82년생 취업자 10명 중에서 여성은 4명에 채 미치지 못하고 남성은 6명을 넘는다. 구체적으로, 82년생 여성 41만5천명 중에서 취업자는 24만명, 남성은 44만1천명 중에서 39만9천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5만9천명 적다. 특히, 82년생 대졸이상 여성이 11만4천명으로, 동일 학력의 남성(19만1천명)보다 7만7천명 적다. 82년생은 4년제 대졸이상 고학력자가 다수인만큼 대졸이상 성별 취업자수 격차가 7만2천명인 70년생이나 5만명인 58년생보다 격차가 더 크다.

넷째, 취업자 중에서 임금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82년생 여성이 86.3%로 가장 높다. 즉, 82년생 여성 취업자는 24만명인데 비해 임금노동자는 20만8천명이다. 이어 82년생 남성 취업자 39만9천명 중에서 임금노동자가 33만9천명으로 85.1%이며, 70년생 여성이 22만1천명(73.8%), 70년생 남성이 30만1천명(72.4%), 58년생 여성이 14만명(64.6%), 58년생 남성이 18만6천명(59.3%)이다.

다섯째, 82년생 정규직 10명 중에서 여성이 3명이고, 남성은 7명이다. 비정규직은 여성과 남성이 거의 절반씩 차지하고 있다. 즉, 82년생 정규직 41만명 중에서 여성은 14만명(34.1%), 남성은 27만명(65.9%)으로 31.8%p 차이이다. 82년생 비정규직 13만6천명 중에서 여성은 6만8천명(49.6%), 남성은 6만9천명(50.4%)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0.8%p 낮다. 나이가 들수록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지만, 여성의 정규직 비율 감소 추이가 급격하다. 82년생 여성 중에서 정규직 비율이 67.4%(14만명)이지만 70년생 여성은 50.2%(11만1천명), 58년생 여성은 30.9%(4만3천명)이다. 반면, 82년생 남성의 정규직 비율이 79.8%(27만명), 70년생 남성의 경우 74.2%(22만3천명), 58년생 남성 60.0%(11만1천명)이다. 한편, 학력별로 볼 때, 세 연령층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85.7%인 82년생 중졸이하 여성으로 사실상 10명 중 9명이다. ‘고학력자 시대’에 저학력자일수록 사회적 취약계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82년생 여성은 동년배 남성보다 근속년수는 0.1년 길지만 노동시간이 1주일에 5.6시간 짧고 임금은 67만원 적다. 82년생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219만원, 같은 나이 남성의 임금은 286만원으로, 남성 임금을 100만원이라 할 때, 여성 임금은 76만6천원이다. 82년생 여성의 임금은 70

년생 여성의 임금(188만원)보다 31만원 높고, 58년생 여성(144만원)보다 75만원 높다. 여성의 임금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낮아지는 반면, 남성의 임금은 70년생이 가장 높고 82년생이 가장 낮다. 동일한 고용형태라 하더라도 성별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다. 82년생 정규직 여성은 249만원인 반면, 남성은 304만원이어서 여성이 54만원 더 적다. 82년생 비정규직 여성은 158만원인데 비해 남성은 220만원으로 여성이 62만원 더 적다. 또한 동일한 학력이라 하더라도 성별 임금격차가 뚜렷하다. 82년생 대졸이상 여성은 258만원으로 남성(323만원)보다 65만원 낮고 전문대졸 여성은 200만원으로 남성(267만원)보다 67만원 낮다. 82년생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집단은 고졸로 여성(161만원)이 남성(241만원)보다 80만원 낮다. 중졸이하의 여성의 경우 141만원으로 남성(166만원)보다 25만원 더 적다.

일급제, 82년생 여성 5명 중 1명은 저임금이다. 2016년 하반기 중위임금은 200만원이며, 저임금 기준은 중위임금의 2/3인 133만원 미만이다. 82년생 여성 노동자 20만8천명 중에서 4만1천명(19.5%)이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82년생 남성은 33만9천명 중에서 1만5천명(4.5%)이다. 70년생 여성 노동자 22만1천명 중에서 7만4천명(33.7%)이 저임금이며 남성은 30만1천명 중에서 1만3천명(4.2%)이다. 58년생 여성 노동자 14만명 중에서 7만8천명(56.1%)이 저임금이며, 남성 18만6천명 중에서는 1만8천명(9.7%)이 해당된다.

여덟째, 70년생이나 58년생과 달리 82년생의 경우 여성과 남성 모두 다수가 선택한 직업 1위는 경영관련 사무원으로 동일하다. 82년생 여성이 선택한 10대 직업 중에서 비정규직이 다수인 직업 1위는 문리/기술 예능 강사로 91.2%(1만명)이며, 2위는 매장판매종사자로 60.7%(6천명)이다. 58년생보다 70년생이, 70년생보다 82년생 여성의 10대 직업에 이전 세대보다 고임금 직업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82년생 여성의 경우 금융 및 보험관련 사무종사자가 318만원으로 가장 고임금이며, 월 200만원 이상 버는 직업은 경영관련사무원(259만원), 회계 및 경리사무원(205만원), 행정사무원(241만원), 학교교사(265만원)가 있다. 그러나, 동일한 직업이라 하더라도 남성의 임금이 더 높은데, 경영관련사무원의 경우 여성(259만원)이 남성(309만원)보다 50만원 적다. 금융 및 보험관련 사무종사자의 경우에도 여성(318만원)이 남성(364만원)보다 46만원 낮다.

마지막으로, 82년생 여성의 미래는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앞으로 12년 뒤 육아로부터 벗어나 노동의 세계로 귀환하면, 82년생 여성의 미래는 2016년을 살아낸 70년생 여성처럼 매장판매직이 직업 1위가 될 것인가. 24년 뒤는 오늘 날 청소원이 직업 1위인 58년생 여성의 기시감이 될 것인가. 82년생 여성은 떠돌이인 70년생이나 58년생에 비해 4년제 대졸이상의 고학력자가 다수이나 여전히 10명 중 4명은 비경제활동인구이다. 일하는 여성도 남성보다 임금이 낮고 비정규직 비율은 더 높다. 이는 12년 전 70년생 여성과 24년 전 58년생 여성의 삶과 대동소이할지도 모른다. 앞으로도 30대 기혼자들은 82년생들처럼 여성에게 육아와 가사노동 또는 비정규직 노동을, 남성에게 장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역대 정부는 고용정책 1순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혹시 양질의 일자리란 남성이 장시간 일하고 여성은 전업주부이거나 육아와 일을 모두 해내는 수퍼맘을 전제로 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양성평등적이고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일자리이길 기대한다.

[부표 1] 학력상태와 성별·연령별 주요 고용지표

(단위 : 천명, %)

			전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여성	58년생	중졸이하	170	102	2	66	61.2	60.0	2.0
		고졸	165	88	1	76	54.2	53.3	1.6
		전문대졸	11	8	-	4	67.3	67.3	0.0
		대졸이상	38	4	1	19	11.1	9.6	13.0
	70년생	중졸이하	22	16	0	6	74.6	72.6	2.7
		고졸	228	160	4	64	72.1	70.3	2.5
		전문대졸	51	35	0	15	70.5	69.9	0.9
		대졸이상	126	85	1	40	68.4	67.5	1.3
		재학휴학	3	2	-	1	73.2	73.2	0.0
	82년생	중졸이하	8	4	0	3	62.0	58.4	5.8
		고졸	113	60	3	50	56.1	53.0	5.4
		전문대졸	104	57	3	44	57.5	54.9	4.5
대졸이상		183	114	2	67	63.4	62.6	1.3	
재학휴학		8	5	-	3	58.9	58.9	0.0	
남성	58년생	중졸이하	101	81	3	18	82.2	79.5	3.2
		고졸	171	145	4	22	87.2	84.9	2.7
		전문대졸	22	20	1	2	92.1	89.7	2.5
		대졸이상	81	68	3	10	87.9	84.2	4.3
	70년생	중졸이하	15	12	0	2	83.5	81.3	2.7
		고졸	210	194	3	13	93.9	92.4	1.6
		전문대졸	54	51	1	2	97.0	95.4	1.7
		대졸이상	164	157	2	6	96.5	95.6	0.9
		재학휴학	1	1	-	0	94.7	94.7	0.0
	82년생	중졸이하	11	8	1	2	79.2	74.4	6.1
		고졸	125	109	5	11	90.8	86.9	4.3
		전문대졸	94	86	4	5	95.2	91.2	4.1
대졸이상		204	191	5	9	95.6	93.3	2.3	
재학휴학		7	5	0	2	77.3	75.0	2.9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B).

[부표 2] 혼인상태와 성별·연령별 주요 고용지표

(단위 : 천명, %)

			전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여성	58년생	미혼	6	3	0	3	50.3	44.7	11.2
		유배우자	297	161	2	134	54.8	54.2	1.2
		이혼사별	82	52	2	28	65.6	63.5	3.1
	70년생	미혼	27	21	0	6	77.0	76.0	1.3
		유배우자	352	239	4	109	69.1	67.9	1.7
		이혼사별	51	39	2	10	80.5	77.4	3.9
	82년생	미혼	100	82	4	15	84.8	81.2	4.3
		유배우자	307	153	4	150	51.0	49.7	2.6
		이혼사별	8	6	0	1	83.4	81.3	2.6
남성	58년생	미혼	9	5	0	3	60.3	59.2	1.8
		유배우자	322	278	7	37	88.4	86.1	2.6
		이혼사별	44	31	3	11	75.8	69.6	8.2
	70년생	미혼	60	48	1	10	83.3	81.5	2.2
		유배우자	348	334	5	9	97.4	96.1	1.3
		이혼사별	37	33	0	4	89.7	88.9	0.9
	82년생	미혼	176	145	9	23	87.2	82.0	5.9
		유배우자	258	248	5	6	97.8	96.0	1.9
		이혼사별	6	6	-	1	89.4	89.4	0.0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B).

[부표 3] 가구주 여부와 성별·연령별 주요 고용지표

(단위 : 천명, %)

			전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여성	58년생	가구주	113	77	2	34	70.2	68.3	2.7
		배우자	251	131	1	118	52.8	52.3	1.0
		기타	22	8	1	13	38.1	35.4	6.9
	70년생	가구주	101	78	2	21	79.1	77.1	2.6
		배우자	311	208	4	99	68.2	67.0	1.8
		기타	18	13	0	5	72.6	72.0	0.8
	82년생	가구주	60	47	1	11	80.9	79.6	1.6
		배우자	275	129	4	142	48.4	47.0	2.8
		기타	81	64	3	14	83.0	78.9	4.9
남성	58년생	가구주	357	303	10	44	87.8	85.0	3.2
		배우자	12	7	0	5	57.0	56.1	1.4
		기타	6	4	0	3	58.8	57.4	2.3
	70년생	가구주	408	388	5	15	96.4	95.2	1.2
		배우자	7	4	0	2	68.6	66.5	3.0
		기타	30	23	1	6	80.0	76.9	3.9
	82년생	가구주	323	307	6	10	96.8	95.0	1.9
		배우자	6	4	1	1	88.7	70.8	20.1
		기타	112	87	7	18	83.9	77.7	7.3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B).

[부표 4] 성별·연령별·학력별 취업자 구성

(단위 : 천명, %)

		취업자	임금노동자				비임금노동자				임금/ 취업자	
			소계	상용	임시	일용	소계	고용 주	자영 자	무급 가족 종사		
여 자	58년생	중졸이하	102	65	27	27	11	37	4	15	19	63.6
		고졸	88	59	24	30	5	29	4	13	13	66.7
		전문대졸	8	4	2	2	0	3	1	1	1	56.8
		대졸이상	18	12	8	4	1	6	2	3	1	64.5
	70년생	중졸이하	16	13	3	7	2	4	0	2	2	77.7
		고졸	160	120	68	46	7	40	6	14	20	74.9
		전문대졸	35	28	16	11	0	8	3	3	1	78.0
		대졸이상	85	58	43	14	1	27	8	14	5	68.5
		재학휴학	2	2	1	1	-	0	0	-	0	94.0
	82년생	중졸이하	4	4	1	3	0	0	-	0	0	92.8
		고졸	60	49	29	19	2	11	3	5	3	82.3
		전문대졸	57	51	41	9	1	6	1	3	1	89.9
		대졸이상	114	99	82	17	-	15	4	8	3	86.7
		재학휴학	5	4	2	1	0	1	-	1	0	76.6
	남 자	58년생	중졸이하	81	45	18	11	16	36	5	30	1
고졸			145	80	55	15	11	65	16	47	2	55.4
전문대졸			20	12	11	1	1	7	2	6	0	62.7
대졸이상			68	49	43	4	1	20	10	9	1	71.2
70년생		중졸이하	12	9	4	2	3	3	1	2	0	76.0
		고졸	194	128	88	23	17	66	20	44	2	66.0
		전문대졸	51	39	33	4	2	13	5	7	0	75.3
		대졸이상	157	124	114	8	2	33	17	16	0	78.8
		재학휴학	1	1	1	0	-	-	-	-	-	100.0
82년생		중졸이하	8	7	3	3	1	1	1	0	0	82.5
		고졸	109	87	67	15	5	21	7	12	2	80.3
		전문대졸	86	72	61	9	2	14	5	8	1	83.6
		대졸이상	191	169	154	14	2	21	10	9	2	88.9
		재학휴학	5	4	3	1	-	1	0	1	-	75.0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B).

[부표 5] 성별·연령별·혼인상태별 취업자 실태

(단위 : 천명, %)

			취업자	임금노동자				비임금노동자				임금 /취 업자
				소계	상용	임시	일용	소계	고용 주	자영 자	무급 가족 종사	
여 자	58년생	미혼	3	2	2	0	-	1	0	1	-	67.8
		유배우자	161	100	44	43	14	61	7	21	33	62.4
		이혼사별	52	37	15	19	3	15	3	11	1	71.4
	70년생	미혼	21	15	12	3	-	6	1	4	0	71.9
		유배우자	239	174	105	61	8	65	14	24	28	72.7
		이혼사별	39	32	14	16	2	7	2	5	-	81.3
	82년생	미혼	82	71	55	16	0	10	3	6	1	87.4
		유배우자	153	131	97	31	2	22	4	10	7	85.8
		이혼사별	6	5	3	2	1	1	0	1	0	83.4
남 자	58년생	미혼	5	3	1	0	2	2	0	2	0	59.3
		유배우자	278	161	114	27	20	116	31	82	3	58.2
		이혼사별	31	21	12	3	6	9	1	8	-	69.2
	70년생	미혼	48	38	21	11	6	10	3	6	2	78.7
		유배우자	334	238	202	22	14	96	39	57	1	71.2
		이혼사별	33	25	17	5	3	8	2	6	0	75.4
	82년생	미혼	145	125	97	25	4	20	5	10	5	86.3
		유배우자	248	210	189	15	6	38	17	20	1	84.6
		이혼사별	6	4	2	2	0	1	1	1	-	75.4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B).

[부표 6] 성별·연령별·가구주 관계별 취업자 실태

(단위 : 천명, %)

		취업자	임금노동자				비임금노동자				임금 /취 업자	
			소계	상용	임시	일용	소계	고용 주	자영 자	무급 가족 종사		
여 자	58년생	가구주	77	55	23	26	6	22	5	17	-	71.4
		배우자	131	79	36	32	11	53	5	15	33	59.9
		기타	8	6	1	4	0	2	0	0	1	77.9
	70년생	가구주	78	60	33	24	3	18	5	12	-	77.3
		배우자	208	150	91	53	6	58	11	20	28	72.1
		기타	13	11	7	3	0	3	1	1	0	79.1
	82년생	가구주	47	41	31	8	1	7	2	5	-	86.1
		배우자	129	110	81	27	2	19	4	8	7	85.5
		기타	64	56	43	13	0	8	2	4	2	88.0
남 자	58년생	가구주	303	180	125	29	26	123	32	90	1	59.3
		배우자	7	4	2	1	1	3	0	0	2	53.0
		기타	4	3	1	1	1	1	0	1	0	68.2
	70년생	가구주	388	281	228	33	20	107	42	65	-	72.4
		배우자	4	3	2	0	1	1	0	0	0	76.2
		기타	23	16	9	4	3	7	1	3	2	71.3
	82년생	가구주	307	264	232	26	7	43	19	24	-	86.0
		배우자	4	3	3	-	-	1	-	1	1	67.3
		기타	87	72	53	16	3	15	4	6	5	82.7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B).

[부표 7] 연령별 여성 취업자 10대 직업

(단위 : 천명, %)

	취업자	임금노동자				비임금노동자				임금/ 취업자
		소계	상용	임시	일용	소계	고용 주	자영 자	무급 가족 종사	
58년생 여성										
주방장및조리사	29	13	7	6	0	16	4	7	5	45.2
매장판매종사자	24	9	3	4	1	15	2	7	6	36.9
청소원및환경미화원	22	21	12	8	2	0	-	0	0	98.1
음식관련단순종사원	15	15	2	9	4	0	-	-	0	98.9
의료복지관련서비스종사자	15	15	7	7	1	0	-	0	-	99.3
작물재배 종사자	14	0	0	-	-	14	0	3	11	0.4
가사 및육아도우미	13	11	1	7	3	2	-	2	-	82.0
제조관련단순종사원	6	6	3	1	1	0	-	-	0	97.2
음식서비스종사자	6	5	1	3	1	1	-	0	1	85.5
영업종사자	6	5	0	5	-	0	0	0	-	93.3
70년생 여성										
매장판매종사자	36	19	10	8	1	16	3	6	8	54.3
문리/기술및예능강사	22	10	2	7	-	13	2	10	0	43.2
회계및경리사무원	20	15	14	1	-	5	-	-	5	74.5
주방장및조리사	18	11	7	4	1	8	2	3	2	58.2
경영관련사무원	16	14	11	2	0	2	1	0	0	87.0
음식서비스종사자	15	12	2	8	2	4	1	1	2	76.8
제조관련단순종사원	13	12	6	4	1	1	-	1	1	90.3
사회복지관련종사자	13	11	10	1	-	2	1	-	0	87.1
이/미용및관련서비스종사자	8	2	0	2	0	6	1	5	0	27.5
음식관련단순종사원	8	8	2	5	1	0	-	-	0	99.1
82년생 여성										
경영관련사무원	31	30	28	2	-	0	0	0	-	99.1
회계및경리사무원	28	27	24	2	0	2	0	0	2	93.5
매장판매종사자	18	10	4	6	0	8	2	4	3	54.7
문리/기술및예능강사	15	11	3	8	-	4	1	3	0	71.1
행정사무원	10	10	10	0	-	-	-	-	-	100.0
사회복지관련종사자	9	8	8	0	-	1	1	-	-	91.0
학교교사	8	8	7	2	-	-	-	-	-	100.0
이/미용및관련서비스종사자	7	5	1	4	-	3	0	2	0	61.2
금융및보험관련사무종사자	6	6	6	0	-	-	-	-	-	100.0
음식서비스종사자	6	4	1	2	1	2	0	-	2	69.1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B).

[부표 8] 연령별 남성 취업자 10대 직업

(단위 : 천명, %)

	취업자	임금노동자				비임금노동자				임금/ 취업자
		소계	상용	임시	일용	소계	고용 주	자영 자	무급 가족 종사	
58년생 남성										
자동차 운전원	45	20	15	3	1	25	2	23	0	43.8
경영관련사무원	24	18	18	0	-	6	5	1	-	75.6
매장판매종사자	20	2	1	1	-	18	6	11	1	9.5
작물재배 종사자	19	0	0	0	-	19	1	18	0	0.7
건설및광업단순종사원	15	15	0	3	12	0	-	0	-	99.8
건설관련기능종사자	8	7	1	1	5	1	1	1	-	83.4
청소원및환경미화원	8	6	3	3	1	1	0	1	-	81.7
건축마감관련 기능종사자	7	5	1	1	3	2	1	2	-	68.1
배달원	7	4	2	2	-	3	1	2	1	53.2
영업종사자	7	3	3	0	-	3	2	1	-	49.6
70년생 남성										
경영관련사무원	46	41	40	1	-	5	4	1	-	89.6
자동차운전원	32	17	12	4	1	16	1	15	-	51.6
매장판매종사자	21	5	4	2	-	15	6	8	0	25.9
영업종사자	17	10	6	4	-	7	4	3	-	60.2
기술영업및중개관련 종사자	12	8	7	1	-	4	2	3	-	64.7
건축마감관련 기능 종사자	12	9	2	2	4	3	1	2	-	72.8
건설및광업단순종사원	11	11	1	2	8	0	0	0	-	98.9
주방장및조리사	10	3	3	1	-	7	5	3	-	31.5
건설관련기능종사자	9	7	2	2	4	2	1	1	-	82.7
배달원	9	6	3	2	0	3	1	2	-	62.9
82년생 남성										
경영관련사무원	67	65	63	3	-	2	2	-	-	97.1
영업종사자	18	16	12	4	0	2	1	1	-	91.2
매장판매종사자	18	8	6	2	-	10	5	4	1	42.6
전기전자및기계공학기술자및시험원	14	14	14	-	-	-	-	-	-	100.0
주방장및조리사	12	7	4	2	-	5	4	1	0	56.4
자동차 운전원	11	7	5	1	0	5	0	4	0	60.4
기술영업및중개종사자	9	8	8	0	-	1	1	0	-	90.1
경찰/소방및교도종사자	9	9	9	-	-	-	-	-	-	100.0
정보시스템개발전문가	9	8	7	0	-	1	1	0	-	88.4
배달원	9	6	3	2	1	3	0	2	1	68.9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B).

[부표 9] 연령별 성별 임금노동자 실태

(단위 : 천명, %)

			규모			여성 /전체	내부 비중		
			전체	여성	남성		여성	남성	
고 용 형 태	58년생	정규직	155	43	111	27.9	30.9	60.0	
		비정규직	171	96	74	56.5	69.1	40.0	
	70년생	정규직	334	111	223	33.2	50.2	74.2	
		비정규직	187	110	77	58.7	49.8	25.8	
	82년생	정규직	410	140	270	34.1	67.4	79.8	
		비정규직	136	68	69	49.6	32.6	20.2	
교 육 정 도	58년생	중졸이하	109	65	45	59.3	46.5	24.0	
		고졸	139	59	80	42.2	42.0	43.2	
		전문대졸	17	4	12	25.8	3.1	6.6	
		대졸이상	60	12	49	19.4	8.4	26.2	
	70년생	중졸이하	22	13	9	57.8	5.8	3.1	
		고졸	248	120	128	48.4	54.4	42.5	
		전문대졸	66	28	39	41.7	12.5	12.8	
		대졸이상	182	58	124	32.0	26.4	41.2	
		재학휴학	3	2	1	66.5	0.9	0.3	
	82년생	중졸이하	11	4	7	37.5	2.0	2.0	
		고졸	137	49	87	36.2	23.8	25.7	
		전문대졸	123	51	72	41.6	24.6	21.1	
		대졸이상	269	99	169	36.9	47.8	50.0	
		재학휴학	7	4	4	47.8	1.7	1.1	
	혼 인 상 태	58년생	미혼	5	2	3	38.0	1.3	1.6
			유배우자	262	100	161	38.4	72.0	86.9
			이혼사별	59	37	21	63.7	26.7	11.4
		70년생	미혼	53	15	38	28.2	6.8	12.7
유배우자			412	174	238	42.2	78.7	79.1	
이혼사별			57	32	25	56.5	14.5	8.2	
82년생		미혼	196	71	125	36.3	34.4	36.9	
		유배우자	341	131	210	38.4	63.1	61.9	
		이혼사별	10	5	4	55.0	2.5	1.3	
가 구 주	58년생	가구주	235	55	180	23.5	39.4	96.7	
		배우자	82	79	4	95.6	56.3	1.9	
		기타	9	6	3	70.2	4.3	1.4	
	70년생	가구주	341	60	281	17.6	27.2	93.4	
		배우자	153	150	3	97.8	68.0	1.1	
		기타	27	11	16	39.1	4.8	5.4	
	82년생	가구주	305	41	264	13.4	19.7	77.9	
		배우자	113	110	3	97.6	53.2	0.8	
		기타	129	56	72	43.9	27.2	21.3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B).

[부표 10] 연령별 성별 임금노동자 10대 직업

(단위 : 천명, %)

	여성	인원	비중	남성	인원	비중
58년 생	청소원및환경미화원	21	15.4	자동차 운전원	20	10.7
	음식관련단순종사원	15	10.9	경영관련 사무원	18	9.7
	의료복지관련서비스종사자	15	10.7	건설및광업 단순종사원	15	7.9
	주방장및조리사	13	9.4	건설관련 기능종사자	7	3.6
	가사및육아도우미	11	7.6	청소원및환경미화원	6	3.4
	매장판매종사자	9	6.3	행정사무원	6	3.3
	제조관련단순종사원	6	4.4	용접원	5	2.7
	영업종사자	5	3.8	건축마감관련 기능 종사자	5	2.6
	음식서비스종사자	5	3.8	경비원및검표원	5	2.6
	섬유및가죽관련기능종사자	3	1.9	행정및경영지원 관리자	4	2.2
70년 생	매장판매종사자	19	8.8	경영관련사무원	41	13.7
	회계및경리사무원	15	6.8	자동차 운전원	17	5.5
	경영관련사무원	14	6.1	건설및광업단순종사원	11	3.6
	음식서비스종사자	12	5.3	영업종사자	10	3.4
	제조관련단순종사원	12	5.2	행정사무원	9	2.9
	사회복지관련종사자	11	5.0	건축마감관련 기능종사자	9	2.8
	주방장및조리사	11	4.9	기술영업 및 중개관련 종사자	8	2.6
	문리/기술 및 예능강사	10	4.4	건설관련기능종사자	7	2.5
	음식관련단순종사원	8	3.5	건축및토목공학기술자및시험원	7	2.2
	영업종사자	7	3.1	전기/전자및기계공학기술자및시험원	7	2.2
82년 생	경영관련사무원	30	14.7	경영관련사무원	65	19.3
	회계및경리사무원	27	12.8	영업종사자	16	4.8
	문리/기술 및 예능강사	11	5.2	전기/전자및기계공학기술자및시험원	14	4.3
	행정사무원	10	5.1	경찰/소방및교도관련 종사자	9	2.7
	매장판매종사자	10	4.7	기술영업 및 중개관련 종사자	8	2.4
	학교교사	8	3.9	정보시스템개발전문가	8	2.3
	사회복지관련종사자	8	3.9	매장판매종사자	8	2.2
	금융및보험관련 사무종사자	6	3.1	금융및보험관련 사무종사자	7	2.2
	제조관련단순종사원	6	2.7	자동차 운전원	7	2.0
	여행/안내및접수 사무원	6	2.7	운송차량및기계관련 조립원	7	2.0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B).

[부표 11] 연령별 성별 월평균임금, 주당노동시간, 현 직장에서의 근속년수

(단위 : 만원, 시간, 년)

		월평균임금		노동시간		근속년수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전 체	58년생	144	312	40.6	44.4	4.7	10.6	
	70년생	188	356	40.6	45.1	5.1	9.6	
	82년생	219	286	40.3	45.9	4.3	4.2	
고 용 형 태	58년생	정규직	197	369	45.7	45.4	8.2	14.9
		비정규직	120	227	38.3	42.9	3.1	4.1
	70년생	정규직	235	400	44.0	45.9	7.4	11.7
		비정규직	141	228	37.1	42.9	2.8	3.3
	82년생	정규직	249	303	42.6	46.3	5.5	4.8
		비정규직	158	220	36.0	44.4	1.8	1.8
교 육 정 도	58년생	중졸이하	125	194	41.9	44.3	3.6	5.8
		고졸	141	270	40.1	45.7	4.7	10.1
		전문대졸	201	334	35.6	43.4	7.6	12.3
		대졸이상	247	485	37.2	42.6	9.7	15.4
	70년생	중졸이하	130	193	43.1	43.1	2.2	5.1
		고졸	157	280	42.1	46.7	3.8	7.8
		전문대졸	166	344	37.7	45.8	5.0	10.0
		대졸이상	278	449	38.7	43.4	8.5	11.5
		재학휴학	154	430	31.5	50.1	3.0	10.5
	82년생	중졸이하	141	166	44.0	47.1	1.7	1.5
		고졸	161	241	40.8	47.6	3.3	3.7
		전문대졸	200	267	40.0	46.0	4.6	4.2
		대졸이상	258	323	40.2	45.0	4.8	4.6
		재학휴학	300	290	37.1	43.5	5.0	3.7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B).

[부표 12] 연령별 성별 월평균임금, 주당노동시간, 현 직장에서의 근속년수

(단위 : 만원, 시간, 년)

		월평균임금		노동시간		근속년수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전체	58년생	144	312	40.6	44.4	4.7	10.6	
	70년생	188	356	40.6	45.1	5.1	9.6	
	82년생	219	286	40.3	45.9	4.3	4.2	
혼인상태	58년생	미혼	273	155	43.4	40.1	14.1	3.7
		유배우자	144	328	40.7	44.4	4.8	11.3
		이혼사별	138	218	40.1	44.6	3.8	6.5
	70년생	미혼	245	233	39.5	43.2	7.3	6.0
		유배우자	190	387	40.3	45.4	5.3	10.5
		이혼사별	153	242	42.7	45.4	3.0	6.1
	82년생	미혼	215	239	41.7	45.4	4.1	3.2
		유배우자	224	316	39.3	46.3	4.6	4.8
		이혼사별	162	209	44.7	44.6	2.3	3.9
가구주	58년생	가구주	147	316	41.5	44.4	4.9	10.8
		배우자	142	212	39.8	45.6	4.6	3.0
		기타	141	163	42.1	43.3	4.0	4.3
	70년생	가구주	185	365	42.2	45.2	4.2	9.9
		배우자	188	243	40.1	51.0	5.3	2.4
		기타	205	222	39.0	43.1	7.3	5.8
	82년생	가구주	243	302	42.4	46.2	4.2	4.4
		배우자	218	320	38.8	42.9	4.6	4.5
		기타	203	227	41.5	44.9	4.0	3.2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B).